

생명샘

Living Stream vol III



전화령

CEMF

1. 마르다 신앙의 변화/5
2. 성경의 변화산에 오르자/8
3. 사탄의 선행위장술/10
4. 살아있는 개의 행복/13
5.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15
6. 성부가 성자를 버리신 이유/17
7. 에덴과 갈보리/20
8. 진리 전달의 채널/22
9. 조금 후에 일어날 두 사건 /25
9. 영생의 삶/27
10. 빛의 열매/30
11. 오계명 지킴이/32
12. 두 창조에 나타난 사랑/34
13. 부활 생명의 효능/36
14. 십자가 상의 스트로우크 (Stroke)/38
15. 작은 일이 무시될 때/40
16. 오순절 성령/42
17. 신자의 웰빙/45
18. 일반은총의 위치/47
19. 의와 인과 신을 대입하라/49
20. 양심의 탄식/51
21. 가정 복음/53
22. 이삭줍기/55
23. 깔뱅(칼빈)의 위대한 점/58
24. 성경세계로의 여행/60
25. 죽음준비/62
26. 신자의 영원한 고백/64
27. 자기자랑/66
28. 은혜 의식/68
29. 바울의 섭리 신앙/70
30. 성령이 오신 목적/72
31. 교회 구원자이신 성령님/74

- 32. 성령이 누구신가?/76
- 33. 성령 세례/78
- 34. 성령의 불/80
- 35. 에베소교회의 부흥을 주소서(1)/82
- 36.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2)/84
- 37. 에베소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3)/86
- 38. 열매 맺는 방법/88
- 39.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함/90
- 40. 부흥의 점화/92
- 41. 부흥의 그림/94
- 42. 에베소교회 부흥의 방법/96
- 43. 에베소교회 부흥의 방법/98
- 44. 에베소교회 부흥의 그림/100
- 45. 에녹에게 부어진 부흥의 영/102
- 46.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104
- 47. 말씀을 품는 습관/106
- 48. 전도실천/108
- 49. 부흥을 갈망/110
- 50. 시내산 언약 /112
- 51. 모세에게 임하신 부흥의 영/114
- 53. 야곱에게 부어진 부흥의 영/116
- 54. 아브람에게 부어진 부흥의 영/118
- 55. 노아에게 부어진 부흥의 영/120
- 56. 부인당함의 고난/122
- 57. 모세와 엘리야/124
- 58. 미스바 부흥/127
- 59. 사사에게 임한 성령/130
- 60. 안식을 주시는 성령/132
- 61. 캄보디아 선교/135
- 62. 어둠의 십자가/137
- 63. 회룡의 십자가/139
- 64. 무정한 십자가/142
- 65. 배신당함의 십자가/144

1. 마르다 신앙의 변화

믿음처럼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말도 없을 것이다. 믿음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리키는 세상적 신념이 아니고 오직 성령받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에 일상의 호흡이나 음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물 떠난 물고기나 공기 떠난 새를 생각할 수 없듯이 신자란 최소한 믿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의사에 앞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더욱이 믿음이란 생각이나 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단골 메뉴처럼 필요한 수단으로 나타난다. 믿음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해 진다. 그래서 신자의 총 관심은 믿음 성장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1 장에 나온 마르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관찰할 때 우리는 참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어떤 변화인가?

첫째 마르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주님으로 믿었다. 주께서 여기에 안 계셨기에 오라비가 죽었다(21)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믿는 다는 뜻이다. 그녀는 신념 곧 이론적 신앙에 머물렀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도 실체는 믿지 않은 실천적 무실론자인 셈이다.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눅 7:1-10)
주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허울 좋은 메끼 칠한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워진다.

둘째 마르다는 현재의 주님으로 믿지 못했다. 단지 마지막 날에 살리는
주님임을 믿는 미래지향적이었다.(24) 나사로를 현재 살리는 분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믿음의 폭이 현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현재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과와 잠깐 대화로 그의
신앙은 변화를 일으켰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주장을
믿는다고 말했다.(25-27) 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때
의심의 구름이 사라진다. 그 교제로 그리스도의 실상이 알려지면 그
믿음은 체험적이 되어 버린다. 언제나 믿음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

셋째 그는 무덤 앞에서 또 다른 불신앙을 표현했다. 죽은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39) 주님이 현재 할 수 없는 분으로
취급하며 도리어 주님의 명예 실추를 염려하는 불신앙이다. 이것 역시
현실의 죽음이란 사건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질 못한 것이다. 그만큼 신념의 노예가 되어있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현재 아는 것만큼 자란다. 어느 사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리로 나갔다.(27)

이렇게 보면 일찍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 마르다의 불신앙적 관심을
경계하신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영적인 것 보다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다.

마르다 신앙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그 말씀을 현재 여기서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배운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 성경의 변화산에 오르자

초대교회 원 사도인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주님과 함께한 변화산 황홀경 체험을 주님 재림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한다.(벧후 2:16-17) 갈릴리 어떤 산에 올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 감당할 수 없는 광채가 나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그 빛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꼬꾸라진 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노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다. 수 년이 지난 후, 사도는 그 광경을 가리켜 주님 재림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재림의 광경을 미리 맛 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가? 삼층천을 체험한 바울처럼 베드로 역시 고이 간직하다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부득불 말한 것이다. 당대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거짓 교훈들이 교회를 어지럽혀 신자들이 이상한 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고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인다. 기적과 표적 그리고 황홀경에 들어가는 체험을 중요시 여김으로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위험을 사도는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보다 가나안의 젖과 꿀에 치우쳐 표적 중심에 서 계신 주님보다 표적의 기이함과 경이로움에 쫓려 진리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며 그 연장선으로 주님의 재림을 불신함으로 현실에 흘러가는 세속의 가르침을 따라 표류하려는 삶이었다. 또한 율법적 크리스찬은 전통의 굴레에 매여 복음의 진수에 이르지 못한 외식의 삶이었다.

그 때 베드로는 또 다른 변화산을 보여준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으로 표현된 성경으로 나가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에 착념한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벧후 2:19-21)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베드로의 변화산의 체험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거기 또 다른 체험을 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산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주의 지식주의 현실주의 인위주의로 더럽혀진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닌다. 사실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이 성경 계시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싸워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참된 변화산인 성경에 오르자. 거기서 우리는 현실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배운다. 문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본래의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의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3. 사탄의 선행위장술

현대 신자를 혼란케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윤리와 도덕 문제이다. 한마디로 행함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신자가 세상 윤리보다 더 못할 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에 행함에 신경을 쓰게 된다. 세상에서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다 보면 세상 사람의 특이한 선행을 보고 혜성의 빗줄기를 보듯이 주관을 잃어 버리고 거기에 기울어 진다.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단정내리기가 어렵지만 자아 반성의 차원을 넘어 자포자기 내지, 믿음과 행함의 이원론적 모순에 빠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믿는 자의 행함이 세상 위인보다 못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행함과 믿음이 나무의 뿌리와 열매 관계임을 오해한데서 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빛 아래서 이것을 정리해야만 한다.

첫째, 행함의 표준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선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영적 선이라 한다. 아무리 사람의 평가가 훌륭하여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표준에 모자라거나 넘어서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다. 이 말은 선을 가장한 죄란 뜻이다.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내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판단이 맞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점검되기를 바라고 그의 판단을 겸허히 받는 심령을 가졌기 때 문이다. (시 139:1-24)

둘째, 행함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이어야 한다. 이 말은 행함과 믿음이 육체 와 영혼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란 것이다. 둘 사이에 틈(이원론)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마귀는 세상을 이원론적 윤리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역사적 심판의 요인이었던 가증스러운 죄악이다.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은 산 믿음에서 나온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뿐이다.(약 2:17) 바울의 “오직 믿음의 구원”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은 마음 에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다. 행함의 문제는 믿음의 문 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선행으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세상에서의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행하려는 꿈과 열심은 거듭난 신자의 성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행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원한다. 과부의 두 렷 돈 헌금을 부자의 금돈 헌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한 주님의 기준은 영적 선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이다. (눅 21:1-4) 모든 선행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방법 으로 이루어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따라야한다. 그러지 못한 선행은 자기 일을 한 것이고 사탄이 사용하는 악의 도구일 뿐이다.

사탄의 현대 위장술은 때로 위협, 고난, 환난으로 찾아오지만 때로는 선행이란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 한다. 신자의 생명샘인 성경에서 나온 사실을 희석시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교묘한 사탄의

위장술에 넘어가지 말고 잘 분별하여 영적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령의 봄을 맞자.

4. 살아있는 개의 행복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는 그 위용과 능력 때문에 성경 비유에 잘 이용되었다. 그리스도를 유다지파의 사자로, 또 천상의 고급 천사로 보는 네 생물 중 하나도 사자로 상징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인생에 지혜를 안겨 주는 전도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논하며 언제나 현실의 고삐를 놓지 않는다. 죽은 사자 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하는 말은 현실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다. 사자와 달리, 성경에 나오는 개는 매우 천박한 수준의 짐승으로 비유 되기도 했다. 가나안 여인과의 일문 일답에서 우리 주님은 개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의 습성을 타락한 신자의 죄로 비유되기도 했다. 이 둘은 모든 면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생사와 관계할 때 살아있는 개의 가치는 죽은 사자의 가치보다 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전도자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살아있는 개에 비유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여 왕년에 무엇이네 하는 고정관념의 담을 뛰어 넘고, 소망과 비전이라는 명목 아래 허황된 꿈 속에 사는 고무풍선 같은 삶을 경계하면서 현재에 성실한 삶을 추구하라고 한다. 미래의 행복, 장래의 부자의 꿈보다 현재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다. 현실의 성실은 과거의 부족을 채우며 또한 우리의 영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현실에 충실하나? 마음의 기쁨과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생활이라는 전도자의 의중이 바울의 고백에서도

엿보인다.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바로 그 삶을 가리킨다. 여기 세 가지가 분명해야한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한 삶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중심하여 산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 그의 주인 되심이 철저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중심하지 않는 일은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 둘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한다.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진다.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의 기본 단위에서부터 순간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셋째,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어야한다. 분명한 목적은 과정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현재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이 신자의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철저히 실존주의적이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라는 삶에 감사하고 견디어 하나님 중심을 배워갈 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의 행복을 아는 것이다. 한 마리의 개일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는 가난한 여인의 심정이 우리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행복의 강수가 흐르기 때문이다.

5.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

우리는 껍질이 벗겨져 속 알맹이를 천하에 드러내는 시대를 살아간다.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면 진리가 가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껍질이 벗겨지며 무엇이 드러나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벗겨진다. 구약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모형(types)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신약의 설명이다. 광야의 만나는 그리스도이며 유월절과 장막절 같은 절기들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이며 수천 년 계속되는 짐승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두 성취된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실체를 찾으며 구약의 무수한 예표가 예수 한 분에게서 모아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껍질이 벗겨질 때는 더 분명하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도록 되어있다. 그 예로서 오병이어는 그리스도이며 그의 피와 살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이고 생명인 말씀(성경)이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떡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머물러 그 생명을 먹는다. 누구든지 성경을 양심적으로 대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받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둘째, 외식이 벗겨진다.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온갖 외식의 껍데기가 장애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거리를 확보하는데도 환영하기는 커녕, 대적하여 자신의 오랜 전통의 굴레에 싸여 판단했다. 안식일을 둘러싼 외식을 벗기시고 참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주장하셨다. 성전을 둘러싸고

온갖 외식이 자행될 때 자신이 성전임을 주장하심으로 외식의 껍질을 벗기신 것이다. 그 외에도 율법적 외식을 밝히시기 위하여 율법의 중심인 의, 인, 신이 곧 예수님 자신임을 주장하셨다. (마 23:23) 오늘 우리 주변에는 발가벗겨진 외식의 가면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다. 고난과 혼란의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알려지듯이 나의 외식도 모두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셋째, 구원의 길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자신의 빛을 볼 수 있는 시인의 고백대로 인간의 외식은 그리스도 안에 올 때만 알게 되고 또 죄 사함만이 회복의 길임을 알게 된다. 죄를 없애는 일은 인간의 자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 중세시대의 속죄부 판매가 또 다시 허용된다는 소식은 그들이 가진 구원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낸 셈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요 14:6).

6. 성부가 성자를 버리신 이유

모리아 제단 위에 번제물로 놓인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칼이 아들의 심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갈보리 제단 위의 속죄제물인 예수님을 향한 성부의 칼은 그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십자가 중심에 일어난 실상이다. 사도 요한은 “다 이루었다”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요 19:30)는 마침표로 간단히 설명한다. 성부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품에 있던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신 것이다. 성부는 성자를 버리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수많은 구약의 그림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두 완성되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자기 백성의 구원에는 이런 엄청난 사랑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보자. 왜 성부는 성자를 버리셨는가?

첫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버리셨다. 하나님은 누가 영광을 도려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창조 속에 보여진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롬 1:21). 그러나 그 영광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그 영광을 인간과 사탄이 가로채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것의 회복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방법뿐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의 죄를 성자에게 대신 담당케 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부는 성자를 버리신 것이다.

둘째,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성부의 구원 계획은 성자의 죽음으로만 성취되는 것이다. 빛을 갇아 의를 세우듯이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제하기 위하여 성부는 성자를 버려야만 했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타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십자가의 절규는 성부의 심장을 찌르는 사랑의 표현이다. 성자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 성부가 먼저 그 찔림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 구원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우리의 육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자기 백성의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심장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구원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값비싼 것이다.

셋째, 자기 백성에 대한 최대의 사랑을 나타내심이다. 창세기 1:3 에 여호와와 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통해 새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암탉이 유정란을 부화시키기까지 품는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산고의 사랑이 창조를 만들어내었듯이, 삼위 하나님의 품으신 사랑이 새 창조를 만든 것이다. 창조물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무한한 사랑이 묻어있는 것처럼 새 창조물인 신자의 일거수 일투족 구석구석마다 그 큰 사랑의 핏자국이 묻어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행위나 큰 믿음이나 헌신에 두지 않고 그것을 능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엡 2:4-9). 자기 백성을 향한 성부의 사랑이 성자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의 뜨거운 사랑이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에 비해 성경은 조용히 한마디로 기록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언급한다. 성부가 성자를 버리신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다.

7. 에덴과 갈보리

부활 절기,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에덴의 회복을 본다. 갈보리는 에덴 회복의 문을 여는 새벽이다. 에덴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본 우리는 갈보리에서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본다.

에덴에서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움을 안 우리는 갈보리에서 그 사망이 어떻게 죽어 부활의 광명이 어떠한가를 본다. 에덴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잃지만 갈보리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 먹는 교회를 본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 마귀와 하나 된 저주의 시작을 본 우리는 갈보리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한 신자의 새 삶의 시작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나 생명을 얻으며, 그것으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꾀다. 부활의 현장에 구약의 데오파니(Theophany 현현)의 영광이 나타났고 온전한 세키나(임재)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이 친히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제한된 범위에만 주어지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그의 빈 무덤에서는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광경을 본 여인들은 너무 놀라워 두려워하여 모두 침묵한다.(막 16:8) 빈 무덤 속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접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며

그리스도인이다. 부활증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자기 생애에 가장 큰 사건임을 알기 때문이며 인류의 생존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살았고, 이것 때문에 의를 찾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바울 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적 무력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깨닫는다.

점점 어두워가는 현실을 사는 우리 가슴이 갈보리 십자가로 시작하게 하라.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부활의 능력을 받아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확신을 표어로 삼고 부활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어두운 현실에서 부활의 강력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자.

8. 진리 전달의 채널

우리 시대는 진리를 감정에 호소하여 마음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성의 호소보다 감정과 감각에 호소하여 진리에 대한 반응을 기대한다. 과거 고전음악이 주축을 이룬 교회음악이 감성에 민감하게 호소하는 현대음악을 채용하여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이에 교회 중심이어야 할 설교에도 그 내용과 스타일이 지성보다 감정의 통로로 마음에 이르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이다. 성경 내용을 풀어주어 진리를 마음에 심으려는 방법보다 모인 청중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 아예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체험이 주축이 되어 청중을 감동시키려는 설교를 많이 한다. 그리고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웃으면 건강에 좋다 하여 인위적 웃음이 마치 복음의 은혜인줄 알고 웃음을 연습시키는 일이 죄를 살피고 회개하여 오는 기쁨과 평안을 대신하여 참 복음의 삶을 혼돈케 하거나 혼합시키는 교묘한 운동이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을 생각해 보자.

첫째, 그 원인은 현대인의 세속화 물결이 교회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이다. 극단적 인본주의 즉, 인간만능사상 혹은 인간주권사상이 여러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인 사상에 교묘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르네상스 철학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속에 흘러들어와 무분별한 타협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명목으로만 예수님을 모신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물론

복음전파라는 목적아래 세상의 눈높이로 낮추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란 변명을 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적 복음이 퇴색되었 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복음과 복음 전파 방법과 그 결과까지 명확히 말해 주기 때문이다. 부흥, 신앙 성장을 강조하다보니 세상의 경영원리인 물량주의 나 마케팅 전략이 어떤 검증을 걸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수직적 신앙이 수평적 문화 안에서 어떤 문화충격으로 다른 형태의 생활을 만든 셈이다. 그래서 지성보다 감정을 통해 마음에 이르게 하는 편한 길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러면 이 두드러진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대답을 16 세기 말의 영국 퓨리탄 설교자에게서 듣는다. 리차드 뵉스터 같은 청교도 설교자의 특징은 지성에 호소하여 마음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바로 깨달은 성경본문에서 진리를 끌어내어 현실의 삶에 맞는 진리를 적용할 때 감 정보다 지성의 채널을 통해 마음(영혼)에 이르게 했다. 진리는 감정보다 지성을 통해 나아갈 때 효과적인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요 8:13- 31)

구약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죽음까지 열거하며 너희도 조상들처럼 행한 다고 적용했던 스테반은 군중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 진리를 적용하고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감정을 통한 설득보다도 지성을 통해 마음에 와 닿게 한 것이다. 이것은 스테반만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 심지어 우리 주님에게도 나타남을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진리

전달 채널에 감정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감정보다 지성에
깨우침으로 마음에 전달하는 일이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이다.

9. 조금 후에 일어날 두 사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엄숙한 분위기 중 들려온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요 16:15, 참조: 요 14: 19, 16:17-19)”라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조금 있으면…”이라 한 것은 시간이 지난 후 일어날 두 사건을 말한 것이 분명하고 그 것도 잠깐 지난 후 되어 진다는 것이다. 제자들도 의문을 가진 이 두 가지 사건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요한복음에 보여진 “내 때(요 7:8,30 등)”라는 반복된 말이 십자가 죽음을 가리킴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데 첫 번 조금 후 보지 못하는 사건을 가리킴이 분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님과 모든 육적 관계가 잠시 중단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이 구속을 이루는 정점으로 역사의 분수령을 가져오며 옛 것을 처리하고 새 것을 만드는 새 창조의 준비였기 때문이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전에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사건 전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 요나가 당한 물고기 뱃속의 어두움처럼 사방이 막혀 전혀 소망 없는 스올(지옥)에서 3 일이 지나 살아난 요나가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떠나가신 것이다. 그 죽음은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위로의 근거가 된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기적도 바로 이 죽음을 통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놀라운 사역, 이스라엘이 맛본 모든 기적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니, 그리스도 죽음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그 공로로만 구원이 일어났고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 죽음의 효능은 정말 구체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 은혜는 분깃점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했겠는가?

둘째,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은 부활의 연장선인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 죽음 이후 즉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대면했지만 본 사건은 그 보다 더 깊은 경험을 말해준다.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덧 붙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이다.(마 28:20, 요 16:20) 즉, 성령의 내주하심(요 14:17,26)을 가리킨다. 성령 받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구원이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의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성령이 오신 후에는 21 세기 미국에 살고있는 신자 개인 안에 살아계셔서 작은 감정 하나까지라도 친히 간섭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갈 2:20)

두 사건이 성취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 보다 더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10. 영생의 삶

일반적으로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통하나 신자들은 더 근원적인 정의를 알고 있다. 영생은 하나님 뿐이고 예수님 뿐이고 성령님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영생이다.(요 17:3)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아는 것”이란 구절만 나오면 먼저 영생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영생하면 아래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

첫째,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영생이고 자신의 말이 영생이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주장하셨다.(요 12:50) 성경의 모든 말씀, 낱말의 말씀(every word)이 다 영생이라는 선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영생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말씀 하였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는 행위를 신사적 성품(행 17:11)으로 바울은 정의했다. 참 사람다움은 외적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품의 아름다움에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성경을 상고할 때 형성된다. 어두움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고질적 질고로 일그러진 마음이 완전한 치료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을 접한 자의 경험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신자는 행복하다. 오늘이라는 날에 어떤 아름다움 이 내 속에서 빚어질지를 기대하며 맛보며 살기 때문이다. 어제 못난 성격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조건은 영생의 원천인 성경을 충실하게 대할 때 되는 것이다.

둘째 이 영생의 삶은 빛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한다는 비유는 그 바탕에 영생을 가진 삶은 빛의 생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먹장구름 같은 마음의 흑암이 사라지고 안개같이 혼미한 생각, 감정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러기에 그는 생명의 빛이 무엇임을 맛본다. 119 편의 시편 저자는 이 빛을 알았기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 이 라고 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도 그 빛을 가지면 밝아진다.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16 세기 말, 청교도들은 오늘에 비하면 얼마나 낙후된 문명에 살았는가? 성경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아간 그들 속에는 21 세기 현대인이 알지 못하는 빛이 있었다. 감옥에 갇혀 평생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목회한 사무엘 루터포드는 스코틀랜드 한 감방에서도 천당의 빛 속에 살았다. 조국의 전쟁 위협과 미국의 불경기로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붙든다 면 반드시 밝음이 생긴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낙심된 마음이 소망으로 나타난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면 반드시 그 맛을 알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셋째, 이 영생은 선한 양심의 삶을 살게 한다. 굳이 양심은 우리 속에 보낸 하나님 의 스콰이라는 말이 아닐지라도 거듭난 양심은 모든 판단기준이 자기 양심임을 인정 한다. 성경이 일차기준이라면 그 다음은 자기의 선한 양심이다. 선악은 그 자신이 더 잘 안 다, 그래서 성도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양심을 통해 성령이

일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선한 양심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진실되이 살려 한다. 영생의 삶이란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이다.

11. 빛의 열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빛으로 태어났기에 어두움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은 양심이 살아났기에 언제 어디서나 빛인지 어두움인지를 쉽게 알게된다.

빛은 비유이다.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자연히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야 한다. 이 셋은 깊이 결속되어 있기에 착함 없는 의와 진실을 생각할 수 없고, 의가 없는 착함과 진실은 거짓이 된다. 그리고 진실 없는 착함과 의란 존재할 수가 없다. 의와 착함은 진실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이 셋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 요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이 성품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맛보아지고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 형상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착하며 의로우며 진실하셨다. 예를 들어보면 한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도 왕으로서 그의 의로운 뜻을 존중하는 그를 귀히 여기셨고 선지자로서 진실된 그의 간구를 열납하셨으며 제사장으로서 소외된 그를 즉시 치료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착함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새사람의 변화 모습은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구약의 3 중직인 선지자, 왕, 제사장 사역의 독특성이 이 셋과 관계된다는 것은

정말 기이하다. 왕은 의를, 제사장은 착함을, 선지자는 진실의 독특성을 가져야만 제 구실을 하게 된다.. 이것을 상실한 자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이 셋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었고 그 안에 있는 신자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 형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마침내 하나님 나라 안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분명히 하는 빛의 열매는 바로 신자의 형상이며 성품이어야 한다.

빛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하고 들 포도를 맺히게 하려고 원수의 공격이 너무 많다. 그들은 언제나 거짓교훈으로 공격한다. 거짓 교훈을 수납하면 그 때부터 그 열매는 떨어진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빛이 되기에 충실한 것이다. 이것이 신자가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먼저 빛이 되어라 그러면 흑암은 저절로 물러가도록 되어있다.

12. 오계명 지킴이

제 5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 계명이다. 그래서 5 계명은 1 계명 인 우상숭배금지 계명과 통한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부모 효도에 대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니 눈에 보이는 가정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섬길 수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십계명의 구조는 잘 짜여진 유기체와 같다. 1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5 계 명을 잘 지킬 수 있고 5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침내 1 계명으로 향하게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부모지상주의가 아니고 주 안에서의 경외를 가리킨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5 계명을 지키는 일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었다. 땅에서 잘되는 일은 만사형통을 가리킨다. 범사가 잘되는 일은 사람의 판단을 넘어선 평가이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인간에게 만족을 준다. 사람들이 부귀공명을 찾아 동분서주하나 진정 그 복이 5 계명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현재의 사업과 가정과 장래가 잘 풀린다는 것이다. 불경기로 고통하는 이 때, 방법과 수단에만 집중된 우리의 그릇된 관심을 5 계명 실천으로 돌이켜야한다.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이 5 계명 지킴이와 관계되는가?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이 잘되게 하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잘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삐를 놓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만이 잘된 후 일어나는 온갖 유혹에서 보호받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복은 장수이다. 5 계명 지킴이는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요사이 사람들의 최고 관심이 건강이란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하고 질고에서 놓임 받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 인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하는 바이다. 성인병에서 벗어나고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그 건강은 주 안에서의 건강 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비록 약해도 주 안에 거한다면 건강하고도 주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복되며 이것이 장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 속에서 온갖 은혜가 흘러나기 때문이다. 이 건강의 보장도 5 계명의 지킴이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를 통해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운데 사는 영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의 잘됨을 범사형통과 건강과 장수의 기준 으로 믿었다.(요삼 2-3)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하여 문명이기의 혜택을 받을지라도 5 계명을 무시하는 자 는 건강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에 보장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5 계명의 지킴이가 되어 약속된 번성과 장수의 복을 누리자.

13. 두 창조에 나타난 사랑

성경은 두 창조를 말한다. 하나는 만물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새 창조라 하는 구원사건이다. 전자는 창세기 초두에 나온 6 일에 창조된 세계를 말하나 후자는 그리스도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 곧 구원 세계를 가리킨다. 전자는 일반은총이라 한다면 후자는 첫 창조의 은혜를 막은 죄를 제하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새 세계를 누리며 사는 특별은총을 가리킨다. 이 두 창조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수한 흔적들로 준비하게 깔려있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황금으로 깔린 천당 길처럼 풍성하게 깔려있는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관찰할 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 창조에 속한 한 그루 나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깊이 스며있다. 그 예로서 잎 모양이 비파 악기처럼 생겨 비파나무라 일컫는 비파 나무의 잎, 열매, 씨앗 그리고 뿌리가 모두 약초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암 치료제로 알려진 B17(아미구다린)이 비파잎 속에 함유되어 있다. 그 잎을 끓일 때 생기는 흰 가루가 청산이란 것인데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위장이나 폐의 병들을 막기 위해 비파 잎차를 마시면 많은 도움을 받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첫 창조에 속한 민들레, 질경이, 도라지 등등...에도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천연 치료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의 증거 이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대할 때마다 그 증거를 찾으려 해야하며 또 그 증거를 찾을 때마다 겸손히 그를 찬양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새 창조 속에 첫 창조와 비교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 스며있다는 사실이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고 기뻐한다. 한 개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주위에 벌써 깔아
놓으신 그의 넘치는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저지른 죄로 고민하다가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 곧 죄 짓지 않는 능력인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셨다. 성령 충만은 알고 보면 사랑 충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며 즐기는 삶은 새 창조에 포함된 사람에게
언제나 약속된 것이다. 알고 보면 둘째 창조 안에서 첫 창조의 은혜가
모두 회복되는 자리로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첫 창조의 의미는 구원
받은 자에게만 약속된 것이다. “오! 두 창조 속에 나타난 풍성한
사랑이여 ….”

14. 부활 생명의 효능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신자 안에서 또 만유 안에서 일하시는가? 구약 시대나 신약시대에서도 일하셨고 자연만물과 사람의 육체, 정신, 그리고 감정 속 에서도 여전히 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안에서 그 효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11 번 이상 나타나신 것은 단지 기이함을 보이려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첫째, 성경대로의 구원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부활 예언은 이미 구약에 예언한 것을 재차 강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실 때나 심문받으실 때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는 한마디 하신 것도 성경을 성취하려는 것이었고 성경 성취의 흐름을 따라 행하셨다. 숨이 가쁘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며 사지관절을 도려내는 통증을 느끼는 자리 에서도 성경에 집중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고전 15: 1-3)

둘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음이란 대상이 분명히 알려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 사건이 증명될 때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꼭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의 확 인하려는 의지가 담긴 의심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경험적 자리로 나가게 했다. 진정한 확신은 진정한

의심을 필요로 한다.(바빙) 그가 못 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만졌다고 믿은 것은 아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을 선언하셨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인 것이다.

셋째,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신다. 얼마나 자상한 모습인가? 고기잡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원동력이 된다. 마치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위로처럼 그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신 것이다.

넷째, 일거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부활의 생명은 언제나 죄 사함을 동반한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믿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을 향해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일거리를 주시러 찾아오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은 그 속에서 언제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내게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

15. 십자가 상의 스트로우크 (Stroke)

스트로우크(중풍)는 암, 심장마비와 더불어 현대인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매우 위급한 질환이다. 미국인 4명 중 한 사람이 Stroke 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맞은 후 6개월 안에 절반이 죽고, 3년 내에 또 절반이 죽는 무서운 병이다. 성경에 나온 중풍병자들이 18년, 38년 되었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만성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병은 여러 원인을 갖지만 한마디로 몸의 균형이 깨짐으로 피 순환이 원활치 못해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일어나는 질환이다. 혈관이 머리에서 터지면 뇌출혈, 혈전(핏덩이)이 뇌 속의 모세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그리고 심장의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된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스트로우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구레뇨 시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은 육체적 기력이 극도로 쇠약한 증거이며 채찍에 맞거나 못을 박아 나무에 매어 달릴 때의 고통도 상상을 초월하고 그보다 성부에게 버림받는 데서 오는 육체적 정서적 고통은 정말 지옥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하신 고난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은 스트로우크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며 세상의 모든 질환의 통증을 모아 놓는다 해도 이것과 비교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스트로우크를 당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다. 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트로우크를 당하셨는가?

첫째, 지옥 형벌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다. 죄를 사망으로 갚으시고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대속의 제 물이라 부른다. 그의 죽음이 나를 살리신 것이다.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 원히 처리하신 것이다. (히 10:12)

둘째,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사 53:4-5)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질고뿐 아니라 모든 영적 질고까지 대신 받으신 것이다. 자기 백성의 모든 치료된 질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된 것이다. 감기약을 먹어 치료가 되었거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되었거나 그 모두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친히 영육의 연약한 사정을 아신 그 분은 그 공로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셋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였다.(사 53:5) 과거 청산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고 그 안에 영생의 풍성한 삶을 안겨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요 10: 10)이다. 스트로우크가 치료된다면 얼마나 감사 한 일인가? 그러나 더 감사한 일은 치료받은 후, 더 풍성한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시 119:71)”는 시인의 고백을 체험적이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해지는 세계를 맛보게 하신다.(고후 12:10)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하늘 평안을 주시려고 나의 스트로우크를 대신 당하셨군요.”

16. 작은 일이 무시될 때

기독교의 신앙은 식물의 성장처럼 작은데서 큰 것으로, 씨앗에서 열매로 나아가는 자연적 생명운동이다. 그래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생각과 태도와 섬김은 결코 바른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수많은 비유와 직접 언급할 뿐 아니라 신자의 실제 삶에서 배워지는 중요한 진리이다. 겨자씨 한 알의 위력이 큰 산을 옮길 수 있으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주인의 상을 받고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놓인 큰 산은 평지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다. “작은 날이라 하여 무시하는 자가 누구뇨?”라고 반문한다.

신앙의 승패는 큰 일 보다 작은 일들 곧,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을 매일 따름에 좌우된다. 죄 고백도 작은 죄부터 시작될 때 참 용서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작은 일을 무시할까? 기독교가 하나의 운동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작은데서 솟아나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온 물이 온 세상에 흘러 생수의 강을 이룬 것처럼 기이한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최소한의 작은 단위 곧, 겸손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이 무시되는 것은 기독교의 길이 아니다. 말씀묵상이 작은 일일까? 기도하는 일이 작은 일일까? 자기 영혼을 건사하겠다는

몹시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작은 일일까? 자아부인이 작은 일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도리어 큰 일 중 가장 큰 일이 바로 현실의 작은 일에 성실하려는 행동이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한 종에게 상이 주어진 것은 기독교의 생명이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에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불경기로 고생하는 이 때,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을 경멸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이어야 한다. 규칙적인 성경읽기, 정기적인 예배참석, 말씀 묵상 시간 지키기, 기도하기. 십일조 내기, 교회 봉사하기, 전도하기 ... 등,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야한다. 마치 의사가 어떤 질병의 최소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수학문제를 푸는 학생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제대로 붙였는가를 살피듯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현미경을 통해 보듯이 작은 하찮은 일들을 살피는 일을 할 때 이미 문제는 해결과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에 큰 일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면서도 지극히 작은 일을 경멸히 여긴다면 거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구멍을 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고을을 점령한 자보다 자기 마음을 제어한 사람이 진정한 용사이다.

17. 오순절 성령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50 일 쯤 되는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렀다.(출 34:22) 오순절 날에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은 첫 추수 이삭을 주께 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구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최초의 사건을 필두로 재림 전까지 구원 역사의 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맛보며 누리게 하는 일을 완성시키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죽음이나 부활이 역사상 한번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강림 역시, 단 한번 밖에 없는 사건이다. 제 3 위이신 성령은 교회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신자 개인 개인 안에서 구속을 책임지시고 완성으로 이끄신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며 믿게 하여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이다.(요 16:7) 오순절 성령강림의 현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2:1-4 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홀연히 일어났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증거이다. 시내 산에 홀연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있는 신약 교회 위에 임하신 것이다.

둘째,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 1) 급하고 강한 바람 2) 혀같이 갈라지는 불 3) 성령의 방언이 그것이다.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 현이다.(출 19:16-18, 20:18-19) 데오파니(theophany 현현)의 영광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장소에만 임한 것보다 더

깊은 곳인 사람의 마음(heart)과 공동체의 중심(center)에 임하신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 모두가 방언을 했다, 방언이 모든 신자의 구원 증거로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하나 님의 임하심 곧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이다. 증거의 형태는 다양하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참 교회를 대표한 120 명 모두가 성령을 받아 그 지배아래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에덴의 공동체가 된 것이다. 시내 산에 오른 모세와 70 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출 24:11) 신약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일어난다.

넷째,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 성령강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 성된 구원을 온 교회에 적용시켜 온전한 구원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 루는 한 가지 목적을 따라 일어난 것이다. 먼저 교회가 복음을 잘 깨닫고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한 것이다. 교회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다. 복음 증거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했다는 사실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참 이스라엘, 새 백성 곧, 교회가 탄생되는 단회적 사건 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점진적으로 반복되는 연속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 교회는“오순절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한다.(엡 5:18)

18. 신자의 웰빙

언제부턴가 웰빙(well being 안녕, 복지, 복리, 행복, 건강한 생활스타일 등의 뜻)이란 말이 현대인들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등을 이용하겠다는 붐이 형성되어 모든 것에 단골 메뉴로 웰빙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않으리라.(요 11:25- 26)”는 주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신자 생활의 웰빙의 관한 근거를 볼 수 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않으리라는 것은 현재 삶의 건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웰빙을 보장하는 약속이다. 그리고 믿는 자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약속을 포함하는 이 말씀은 현재의 건강을 초월한 영적 세계의 웰빙을 보장하는 근거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과 생명, 예수님과 부활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 없는 웰빙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대의 웰빙은 현재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나 죽은 후에 미래에 무엇을 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은 더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은 현재 믿는 진행형을 능가하질 못한다. 현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생명임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정신계에도 생명은 예수님이고, 물질계의 생명도 예수님이란 것이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의 생명도

예수뿐이란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위한 웰빙에도 그 중심과 핵심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의 미 없이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 하지 않는다. 영생본위의 삶이 장수이다. 장수하여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저주이나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일을 했다면 장수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한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웰빙을 추구하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웰빙의 중심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 진정한 신자의 웰빙은 육신의 건강과 형통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영혼의 잘됨이었다. 영혼의 잘됨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스도를 믿는 진행형의 삶이다.(요삼 1-2)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주장하는 생활이 바로 신자의 웰빙이다.

19. 일반은총의 위치

일반은총이란 자연, 만물 그리고 사람의 양심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구원 주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한다. 실상은 일반은총을 제자리 에 갖다 놓을 때 그 의미가 살아나지만 특별은총보다 앞서거나 동등하게 취 급할 때 그 성격이 사라진다. 의학도 하나의 일반은총 영역에서 다루어지기에 절대의 자리를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의학의 “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대치하는 이상한 발상을 하거나 종교화시키려는 생각은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복음을 모르는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방면에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일반 은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손이다. 가인의 후예에게서 음악, 건축,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된 것은 어느 기간 동안 허락하신 은혜이다. 수천 년간 하 나님은 그들 영역에서도 일하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된 후, 이제는 묵인치 않으시고(행 14:16) 이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시키신 것이다.(엡 1:10) 더 이상 복음을 떠난 일반은총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시고 복음으로 돌아와 제 위치를 지키라는 요구를 하셨다. 만물은 하나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이다.(롬 8:21)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반은총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의학의 기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기술로 치료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주님이 하셨기에 치료된 것이다. 거기서도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반면에 그렇다면 일반은총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것인가? 주님은 일반은총을 통해 치료하는 과정을 결코 무시 하지 않으신다. 도리어 의사의 지혜와 기술과 성실함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 둘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한다는 것이다. 기도 응답으로 기적으로 나왔다면 더 권위가 있고 약을 먹어서서 나갔으면 믿음이 약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둘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겸손의 자리 곧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갔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이 없다면 기적을 통한 치료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한다. 약을 먹고 겸손한 것이 기적으로 나아 교만한 것보다 더 낫다. 주님은 그 목표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행한 기술로 치료될 때 내가 했다는 자신감과 치료 비결을 나만이 가졌다는 확신은 매우 자극적인 유혹이다. 순간 매력적으로 몰려와 안하무인의 추한 사람으로 만든다. 폐일언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일반은총이 살아난다. 주권 인정이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선교 도구로서 사용할 때도 제 자리에 두도록 해야 한다. 주객이 바뀌어지면 안된다. “진정한 기술은 감추는 것이다”는 겸손의 태도로 임해야한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주장해야한다. 그럴 때 일반은총이 복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20. 의와 인과 신을 대입하라

구약 율법의 613 조항은 십계명을 적용한 법들로서 시민법, 위생법, 그리고 제사법으로 되어있다. 율법조목들을 바로 이해하는 길은 율법의 뿌리인 의(righteousness))와 인(mercy)과 신(faithfulness))이 어떻게 스며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율법의 더 중한 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마 23:23, 개정역에는 정의, 긍휼, 믿음으로 번역되었다) 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진리의 경중 문제를 살필 때 우리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싶은가? 율법의 실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된다. 율법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가? 복음의 빛 아래서 그것을 볼 때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 조항마다 의와 인과 신을 대입시킴으로 깨달음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첫째, 의를 대입시킬 때 알게 된다. 의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칼날처럼 선을 분명히 그리는 구분점 곧, 기준점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의가 율법 조항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야한다. 예를 들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 22:18)”는 명령은 왜 그렇게 단호한가? 의를 세우려는 목적을 거스리는 계시를 혼잡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이단에 대해 죽음(요일 5:16)의 정죄가 주어진 까닭을 이해하게 된다. 그 의가 신자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나 한 다른 의 곧 복음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진 그 의만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롬 3:20-21)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어 의인이 된 신자는 그 의로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둘째, 인을 적용해 보자. 인이란 하나님의 사랑, 곧 인자란 말로
나타난다. 율법의 모든 조항에는 둘째 뿌리인 사랑 곧 긍휼이 언제나
깔려있다. 원수가 주릴 때 자비를 베푸라는 것이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출 22:21-27)은 인애의 성격이 쉽게 나타난다. 그 인애는
복음 세계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애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을 적용할 때는 율법의 밑바탕이 온통 드러난다. 앞서
말한 의와 인은 진실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의 토양에
모든 율법 조항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성이 모든 율법조 항에 깔려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영원하심을 찬 양하라고 한다.(시 136:) 사실 모든 복과
능력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모든 조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대입시킬 때 성경의 세계가 열 린다.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가를 발견하고 율법 속에서 복 음의 보화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마다 의인신 을
대입시킬 때 열려지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한다.

21. 양심의 탄식

성도의 탄식이란 일종의 스트레스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싸인이다.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기 때문이다. 시편 72 편의 성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알았다. 신자에게는 어떤 점에서 탄식이 필요한가?

첫째,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현실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던 제자들의 무지와 그렇게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은 가룟 유다의 발꿈치를 드는 가증스러운 배반을 아신 주님의 심령은 괴로우셨다.(요 13:21) 주님이 그의 선한 양심의 레이더에 포착 되는 사탄의 꾀계를 아시면서도 친히 그 고난을 다당하시고 탄식하심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며 우시기도 하셨고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 전에도 죽을 지경의 고민으로 땀이 피로 바뀌어지는 고통으로 인한 탄식 기도가 일어난 것이다. 이 탄식은 십자가의 절규로 절정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완성하셨다, 그의 탄식이 십자가 짐이었다. 그만이 하실 수 있는 탄식이면서 동시에 교회로 그 탄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본을 보이신 것이다. 생명은 거룩한 탄식을 통해 낳아지는 것이다.

둘째, 신령한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선한 양심에 끌리는 문제를 가지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친히 구해주시는 일은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다. 환난 날에 탄식함으로 주를 부를 때 건짐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시 72:12) 산꼭대기에서도 풍성 한 곡식을 얻는 은혜가 탄식의 통로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다.(16) 셋째,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기도로 하늘의 비와 불을 끌어내리던 엘리야가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탄식은 생각지 않은 능력 을 체험하는 기회였다. 하나님은 친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 셔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시다가 힘을 얻어 호렘산 골에 나가 하나 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능력을 체험 한다. 폭풍과불과 지진이 지 나간 후 조용히 들리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속에서 흘러나는 능력을 받아 마지막 사역을 이루고 살아서 승천한다. 성도의 탄식이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 주리라는 약속은 탄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슥 12: 10) 현대 교회는 잔치 집보다 초상집을 더 잘 찾을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신령한 탄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22. 가정 복음

만물 창조의 중심이 에덴동산이라면 에덴동산의 중심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나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라면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구속사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가정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주목 대상이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강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였다. 주님은 가정 관계와 친지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가정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릴 때는 전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나 아간의 경우가 그러했다. 하나님 중심하지 않은 가정의 결속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마귀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복음운동에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목회에 있어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바울의 확신은 창조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순전한 음식을 먹고 기뻐했고(행 2:46) 이방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고 했다. 이것은 주를 위해 부모 처자식을 버릴 때 이 땅에서 백배나 받는다는 주의 가르침(눅 14:25-27)과 같이 가정을

중심하여 전개되는 복음의 성격을 그대로 전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항목을 넣었고(딤후 3:4,12)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너 자신이 본을 보여 가정을 세우라(딤후 1:11)고 권한 것은 창조의 기본원리를 복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키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퓨리탄들은 가정을 가정의 목사로 생각했다. 담임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필기하여 가정 예배 시에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때의 마귀 공격의 주요 목표는 가정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가정의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동성연애나 비성경적 여권신장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마귀의 유혹이라 할 수 있다. 이 급박한 사탄의 도발적 목표가 가정이라 할 때 무엇보다 가정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에덴에서 시작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분명하다면 가정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대교회가 나갈 길이다.

23. 이삭줍기

룻기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신앙적 효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은 책이다. 거기 나오는 룻의 효도는 나옴이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삭 줍는 한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이스라엘의 기업과는 거리가 먼 모압 출신인 그녀는 가련한 과부가 되었으나 나옴이에게서 여호와 경외신앙을 배운 것이 하나님 의 은혜이다. 베들레헴으로 역 이민할 때 같이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 자기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따 랐다. 이 마음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데서 시작되었다. 남의 밭에서 추수 이삭을 줍기 위해 근면과 성실로 임하자 보아스의 배려를 받고 그의 식탁에 참여하다가 마침내 보아스의 침상까지 나아가는 복 받은 여인이 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기 때문이다.(마 1:5) 룻의 이삭 줍기 는 우리에게 세 방면에 영적 지혜를 갖게 한다.

첫째, 신앙생활은 이삭줍기와 같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한 신자의 전 생애는 이삭 줍는 마음으로 임할 때 승리하게 된다. 복음을 듣고 겸손히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순간적이지만 무덤에 갈 때까지의 여 정은 평생 걸린다. 이 과정을 이삭 줍는 심정으로 임할 때 지혜를 얻는다. 아 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와 성실로 만족한 것 같은 모세의 성실함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한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임하는 일상 이 될 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

둘째, 교회생활도 이삭줍기와 같다. 교회생활은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네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20)”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생활의 성실함이 현실의 복과 직결되어있다. 한마디로 교회생활에 건강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통일된 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이삭 줍는 심정이 아니면 불가능해진다. 롯이 보아스의 눈에 들기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성실하게 행한 것처럼(롯 3:22)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실한 생활(요 15:5)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나오미의 지침을 따라 이삭 줍기와의 관계로 엮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임할 때 거기에 주님은 일하신 것이다.

셋째, 그리고 목회는 이삭줍기와 같다. 교회생활을 건강하게 하도록 책임 지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직분이 목사이다.(엡 4:11)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을 쉰다면 그는 기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별 일을 다 한다 해도 말씀증거를 체쳐두면 그 자체가 직무태만이다. 한번 설교로 3000 명이 회개했다는 베드로의 설교이상도 귀하지만 남의 밭에서 보리이삭을 줍는 롯의 이삭 줍는 가난한 마음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삭은 별반 좋은 것이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롯이 나오미의 말에 성실히 임할 때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소리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서 성실히 따를 때 그리스도의

부요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늘 요란한 이 세상에서의 신자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목회활동에 이삭 줍는 루트의 자아상을 새기며 나갈 때 많은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이다.

24. 깔뱅(칼빈)의 위대한 점

깔뱅 탄생 500 주년을 기념하는 2009 년 올해, 세계의 칼빈주의 학자들이 2 년 전부터 준비한 기념 심포지움이 7 월 10 일을 기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요한 깔뱅은 현대 신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가?

첫째, 그는 성경을 아는 자의 본을 보였다. 19 세 나이에 프랑스의 한 성당 앞에서 한 개신교도가 불에 타면서도 웃으면서 죽는 모습을 본 것이 동기가 되어 개신교로 전향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쓴 성경주석은 모든 주석의 표준이 되었고 번역된 일부의 설교들은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하게 믿고 사랑한 증거가 드러난다. 그는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 것이다.

미국의 헌법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한 것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청교도 신앙의 영향으로 온 것인데 이 퓨리탄들이 깔뱅의 성경관을 그대로 받아 삶에 적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적 신앙을 파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수단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의 성경의 우위성을 퇴색시키지 말아야한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아는 본이었다. 성경을 아는 깔뱅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경건의 본이 된다. 바울이 보화처럼 여긴 경건이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도 맞볼 수도 없는 신앙의 본질이다.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깔뱅으로 꼽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혁주의자는 바로 이 경건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강요에 나온 첫 주제가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명제로 시작하는 것은 경건의 신앙 곧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두었기 때문이다. 복음 활동이 극에 달하는 우리 시대는 이 경건을 깔뱅에게서 배워야한다. 하나님 아는 방법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인간을 아는 본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히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나가게 한다. 자기를 알 때 세상을 알고 목적을 알고 방법을 알게 된다. 이것은 깔뱅의 독특한 발견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인간 모습이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의 실상을 발견할 때만 인간의 무력 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실상을 보기 때문이다. 깔뱅의 글에 도도히 흐르는 이 두 흐름은 인간의 전적부패성과 하나님만이 절대구원자이라는 사실 이다.

성경,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아는데서 나온 경건의 자이언트인 깔뱅의 본을 주목할 때 우리 시대의 홍해가 갈라지고 견고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25. 성경세계로의 여행

미국 이민생활 3년 만에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밤새 커피를 마셔가며 운전하였기에 그곳에 도착하면 당장 모텔에 들어가 잠부터 자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는데 아침의 일출로 시작되는 그랜드 캐년의 장관을 보는 순간,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며 열심히 계속 드라이브하며 구경한 일이 있었다. 미국 낮 설은 땅에 익숙치 못해 별로 호감을 갖지 못했는데 그때 나의 마음에 미국에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받은 감흥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누구에게든지 미국이 좋은 나라임을 말할 때마다 그때 본 장관을 설명하기 바쁘다

자연계의 장관을 본 것이 이런 감동을 준다면 특별계인 성경의 장관을 본다면 얼마나 더 설레이겠는가? 시편 19편은 이 두 세계의 조화를 본 사람의 특별 간증이다.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며 질서있게 돌아가는 자연의 장관을 관찰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1)”고 소리친 시인은 곧이어 여호와와 말씀 세계의 장관을 보고 노래한다.(7-10) 말씀 세계의 완전함과 확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과 정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모든 보배보다 더 사모할 세계임을 보고 감동에 젖은 것이다. 성경세계의 풍성한 내용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자연세계의 부요가 말씀세계에서 완성되는 하모니를 보고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목상이 모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며 제물로 살기를 원했다. 이것이 성경세계를 본 자의 감격이며 은혜인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각 권 하나 하나의 세계를 잘 볼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한 세계로 환히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발견할 때 가슴이 뗀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모든 삶을 거기에 걸고 성경화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그 세계가 너무 놀랍고 좋기 때문이다.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제자들의 경험처럼 성경이 이해되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밝아지는 체험이 일어난다.(눅 24:32) 성경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둡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잠식되어 가는 신자의 살 길은 성경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전체를 보기도 하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배워진 진리의 조각들을 현재의 나의 삶과 연결 시켜보라.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26. 죽음준비

죽음은 우리 주변, 우리 가정 그리고 내게도 찾아온다. 암이니, 폐렴이니 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오는 죽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하는 죽음도 많다. 최근 부름 받은 모친의 죽음을 통해 크게 배운 것은 죽음이란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전경자 권사님의 1개월 병원생활을 통해 죽음에 관해 몇 진리를 생각해 본다.

첫째,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다. 10년 동안 타던 휠 চে어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시작되었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신 셈이나 의사는 자연사로 판정했다. 양로병원, 중환자실, 중간병동으로 전전하며 풍선, 산소 마스크, 튜브를 입에 꽂아 산소공급의 도움을 받던 호흡을 마침내 영구적으로 목을 뚫어 해야한다는 의사의 결정이 떨어졌다. 목을 뚫는 대신 임시튜브 호흡기 빼고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가입되었다. 빠른 심장박동과 가쁜 호흡으로 괴로워하는 기간을 거쳐 물핀을 맞고 조용히 주무시는 중에 별세하셨다. 정신 차리면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행동에서 홀로 서야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죽음 앞에서 꼭 붙들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이다. 84년 평생을 파란만장한 세월,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책임지고 고요하게 사셨다. 막상 죽음 앞에 설 때 붙들 것이 무엇인가?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혈만 바빙이 임종 시에 자기가 평생 바쳐 쓴 개혁주의 교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처럼 신자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가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최선의 표현이다. 성령은 신자의 마음에 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복된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야 마신다.

셋째, 장례를 준비해야한다. 장지, 관, 손님 대접 등등은 모두 돈이 드는 일이다. 수년 전에 애써 마련해둔 장지와 준비해 둔 장례비용으로 장례를 준비했고 118 도 되는 폭염 속에서도 모친을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친지들이 찾아와 천국환송을 하여 은혜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주께로 와 주께로 돌아가는 성도의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27. 신자의 영원한 고백

욥은 곤고한 날을 당할 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함으로 긴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관념적으로 인정 하는 것 이상, 현재 당하는 고통의 각각의 일들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주되심의 고백은 구원의 본질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래서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할 때 성립된다. (롬 10:9-10)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어울려진 상태를 가리킨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에스겔과 야고보의 계시 속에도 인정되었다.(겔 14:14, 약 5:11)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실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다. 사랑과 두려움을 본질로 한 경외심이 상실된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증거이고 열매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접하면 두 가지 자각 즉, 1) 자아 부패성을 알고 2)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덮어 놓고 믿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것이 경건이다.

둘째, 구체적인 일에 주되심을 인정했다. 경건은 다른 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마친 후에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은 혹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욱되게 하는 죄를 범했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린

것이다. 자녀들 하나하나의 경외문제를 챙기고 그들 마음에 죄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 습관화된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
하는 증거들이다.

셋째, 욕이 당한 고난의 바람은 주재권이 더 분명해졌다. 여러 차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즉, 졸지에 재산을 날리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자기 몸에 불치병이 걸리고 자기 아내마저 찌르는 말을 할 때 주신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의
고백은 그의 경건의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께로 왔으니 주에게
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주장은 신자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고백이다.

28. 자기자랑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자랑 (boasting)”이라 지적했다. 자랑은 육체의 부패성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교만, 자만, 거만이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자랑에 대해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제한시킨다. 이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고후 10:18)”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정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자연히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자랑이다. 거짓 교훈으로 감염된 고린도 교회가 사람 자랑, 장기 자랑, 업적 자랑으로 치 달는 것이 모두 사탄의 술책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자랑하였다.(고후 11:16-18) 이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화를 받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것이다.(눅 6:26)

자기 자랑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럴수록 사탄의 위장전술을 경계해야한다. 자랑하려 면 바울처럼 주의 은혜 주심을 자랑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것을 자랑해야한다. 또 이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세례요한의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 그럴 때 이 자랑은 복음증거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삼층천에 다녀온 체험을 말할 때에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한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는 법을 잘 알았다. 신앙 간증으로 꼭 찬 우리 시대에 조심할 것은 주 안에서의 자량을 배우는 일이다. 변화산의 황홀경 체험, 병 고침 받은 체험 심지어 천당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할지라도 현재 있는 성경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무익한 일이 되고야 만다.

도화선을 건들기만 하면 교만하게 되는 치명적인 자기자량의 유혹 과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난한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 래서 자기를 보는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한다. 일곱 고을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를 쳐서 제어하는 일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용사의 길이기 때문이다.

29. 은혜 의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신 것은 은혜 의식을 잃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정착 직전에 수 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 이 은혜의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 민족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가르치 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배은망덕함으로 매를 수없이 맞았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언제나 찾아오는 유혹이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 시대에 먼저 할 일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다.(고후 6:1-2)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할까?

첫째, 기회인식이 있어야 한다. 구약에 예언된 큰 은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종말시대에 부으신다. 그 시대를 가리켜 바울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한다. 언제? “지금(now)”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는 제도적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시대란 것이다. 누구든지 주께 나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 족석에서 은혜를 받았고 돌 탕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한 여인도 그러했고 소문난 죄인 삭개오도 그리스도를 영 접한 바로 그 순간 은혜가 임했다. 현재 내가 처한 바로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주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두드리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있다. 은혜가 유지되는 길은 은혜를 받으려는 때에 민감해야 한다.

둘째, 두 가지 무기에 익숙해야한다. 바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자는 고난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궁핍, 헐벗음, 난동 등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능히 인내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두 가지 무기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흔들할 줄 아는 사람은 현실 문제에 대한 말씀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타개한다. 성령은 반드시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이다.

셋째,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 은혜 받은 마음은 우주를 품지만 은혜를 떠나면 어느 하나라도 품지 못하는 조부란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야 한다. 배은망덕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하여 마음에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고 하는 감사로 보답할 때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은혜의식을 붙들자!

30. 바울의 섭리 신앙

평범한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거기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이 섭리 신앙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근거할 때 보잘 것 없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앳사리온 (동전의 명칭)에 거래되는 것이나 머리털이 희고 검게 되는 것,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한 세포의 생사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됨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는 섭리를 믿었다. 전도문이 닫히고 열리는 일, 누구를 만나고 못 만나고 하는 일, 여러 번 가기를 애쓰나 길이 열리지 않아 미해결로 남는 일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며 제자인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고 디모데가 만성 위장병으로 시달리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믿는 것이 섭리를 아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를 가진 자요, 기도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고후 2: 14)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섭리는 복음의 승리, 신자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절대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 섭리를 믿고 사는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생명과 사망을 구분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 향기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이다. 한 마디로 매순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섭리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포괄적이다. 항상 각처에서 주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 진행형이기에 섭리의 품에 안긴 신자는 진정한 위로를 누린다. 감옥살이 하던 요셉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 개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경기침체가 영혼침체로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입 맞추 줄 알아야한다. 현재의 장벽, 괴로움, 답답함, 풀려지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의 문제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현실을 겸허히 받아 들여 주의 뜻을 구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 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한 베드로의 맹세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게 한 것이다.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 위에 섰더라면 더 아름다운 결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항공모함처럼 시속 5 마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다면 많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1. 성령이 오신 목적

주님이 떠나신 후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첫째, 그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 “보혜사(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이다. 성령은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를 거룩케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또한 그는 구원을 완성시킬 주권자로 오셨다.

둘째,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 14:6) 바로 알게 하고 믿도록 하며 사랑하도록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었다면 진리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다. (롬 8:9) 또한 그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며 깨닫도록 하신다. 그래서 26 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다. 성령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오류에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지닌 성향, 관습, 기호, 학식 등을 사용하여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딤후 3:16)

셋째,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요 16:19 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고 했다.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약속은 모든 신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 먼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사도들 생전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요 16:16 참조 14:18) 이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가리킨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자와 분리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역사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알리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요 16:15) 그런 맥락에서 사도의 역사는 주님과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일하시는 연장사역인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은 지상에서 낮아지신 신분으로 일하셨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은 높아지신 신분으로 친히 일하셨다.

넷째, 성령은 신자가운데 내주하신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신자들은 그를 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16),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17)”,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23)”는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한다. 신자들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된다(요 14:20) 이 얇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고아의식으로 부터 사랑받는 양자의식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롬 8:15)

32. 교회 구원자이신 성령님

성령님의 오심은 교회에 최대의 뉴스이다.(요 16:12-16) 물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항상 있었지만 오순절 이후의 사역은 더욱 더 강력하고 구체적이었다. 이 성령님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진리의 성령으로 불렀다.(13)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1) 첫째, 성자가 진리이시다,(요 14:6) 2) 둘째, 성자 성부의 말씀 곧 성경이 진리이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관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성령께서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 안에 거하라(요 15:5)”는 말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바로 성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교회는 말씀을 떠날 수 없고 말씀에 달라붙어 그 자양분을 먹고 산다.(요 15:5) 성령께서는 말씀되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13)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 16:16-24 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조금 후에 오리라고 길게 말씀하셨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극심할지라도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매 환난 중에서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성도이다. 이유인즉,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으심은

교회의 죽음이며, 주님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천은 곧 교회의 승천이 되었다. (엡 2:4-6) 그러므로 교회의 현 위치는 높아지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보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그 중에서도 승리자의 기쁨과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보장을 받았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권세자의 머리를 부수뜨렸기 때문이다.

33.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인격적 감화나 하나님께로 온 어떤 영향력이 아니다. 그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로 (고전 2:11, 12:11, 롬 15:30) 삼위일체의 제 3 위이시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는 의지를 가지셨으며 사람의 깊은 심령 상태를 통찰하시는 지성을 가지셨으며 신자가 죄를 범할 때마다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육체는 없으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일하시는 인격자이시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성부에게 구함으로 성부께서 교회와 신자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다. (요 16:14)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은 성자와 성부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속하는 종속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거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더 못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삼위일체란 삼위 외에 따로 본체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만 삼위가 존재하되 신성의 단일성과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다. 같은 본질, 같은 능력, 같은 영원성을 지닌 신성을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시기 때문에 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일체가 된다고든 혹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곧 하나님이시며 성자,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3 위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라야만 완전한 일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Westminster Confession(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 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이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요일 5:7, 마 3:16, 28:19, 고후 13:14)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요 1:14, 18)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요 15:26, 갈 4:6)”

성령을 모신 신자는 성부를 아버지로 성자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성부가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이다.

34.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부른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불과 성령 으로 세례주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마 3:11) “물과 성령”의 세례에서 성령이 중심이듯 “불과 성령”에서도 성령이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성령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성령 의 중생과 같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근본 출생은 성령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일어난 결과이다. 흑암과 공허의 땅을 성령이 사랑으로 불드심으로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한 죄인의 마음에 찾아오심으로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일정기간 품어 새 생명이 이식되어 새 사람으로서 의 신비스러운 출생이 이루어진다. 같은 몸이고 같은 환경이지만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대 개혁이 일어난다.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진리로 이끄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성령의 중생을 가리켜 기름 부으심이 신자 안에 계시는 것으로 설명했다.(요일 2:27) 그 기름부음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 신자 속에서 일어난다.

둘째,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교회 일원이 된다.(고전 12:13) 한 성령을 먹고 마심이라고 말한 바울의 이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음식물의 소화처럼 표현했다. 믿음이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먹어 연합되어야 한다. 이 신비스러운 일을 바로 성령 이 하신다. 성령은 믿게 하시고 회개시키신다.(엡 2:8-9) 이 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생을 나누는 교회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사람의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연약할 때 서로 상함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참된 교통이 성령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지체이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신 통일성을 가진 유기적 몸이 된다.

셋째, 성령세례는 능력의 성령세례를 기대하게 한다. 성령세례는 단 한번 받지만 능력의 세례는 성화와 사역을 위하여 반복적이다. 조 건만 갖추었다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부으시는 기름부음이라 할 수 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된다. (벧전 1:8)

35. 성령의 불

불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이상기온으로 연일 100도 이상 되는 찜통 더위로 고생하고 있는 요즘, 산불이 일어났다. 2년 전에도 인랜드 지역의 하이킹 5마일 코스 주변을 태운 불은 정말 무서웠다. 불탄 다람쥐, 도마뱀, 산고양이가 여기 저기서 발견되었고 불타다 만 거대한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산불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 불이 무서운 이유는 닿는 것마다 바짝 태워 버리는 힘 때문이다. 성경이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 때문이다. 어떤 능력인가?

첫째, 설득하시는 능력이다. 구속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지혜이다.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이 조명하여 전에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을 화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앓은뱅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설득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둘째, 소생시키는 능력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중생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죽은 뼈들이 뼈와 힘줄,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일을 모두 성령이 하신다. 부활케 하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시신에 역사하던 분이 성령이시다. 바울은 신자에게 이

강력이 속에서 일한다고 주장한다. 장차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셋째, 풍성케 하시는 능력이다. 은사와 열매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그 뿌리가 교회의 영적 유익에 있기 때문에 덕을 제쳐 놓은 성령 은사는 이미 그 성격을 잃은 것이다.(고전 13:1 -2) 그리고 개인 마다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 인, 신을 닮게 하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넷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절망한 채 엠마오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부활 증인이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온 것이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다. 금번 성회에 이 성령의 불을 받자!

36. 에베소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1)

부흥이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새 역사를 위한 전환점이 바로 부흥이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란 글에서 부흥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 역사를 보았다. 에노스 때에 일어난 부흥은 노아시대, 모세시대를 거쳐 다윗시대, 요시야 시대, 나아가 스룹바벨 때에 성령의 기쁨을 부으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진정한 새 시대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까지 계속 성령을 부어 부흥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퓨리탄들이 따르기 좋아한 후천년기설이 자연스럽게 강조된 것처럼 보인다. 저 언덕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당시 교회에 적절한 진리로 인정된 셈이다. 부흥, 갱신, 회복 등의 용어는 모두 성령으로 시작하는 부흥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부흥도 바로 이 흐름의 한 부분이다. 교회에 부으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맞는 능력으로 임하도록 준비된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부흥은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 사건이다. 개인에게도 이 부흥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 별로 일어나야하며 각 나라 즉,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에도 이 부흥의 불이 타올라야 만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흥의 그림을 에베소교회에서 찾는 이유는 이렇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에베소교회를 향한 바울의 꿈은 단지 소아시아 지역만의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수도인 로마를 겨냥하고 나아가 온 세계를 겨냥한 선교의 비전이었기 때문이다. 불과 12 사람이

모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영향력이 당장 어떻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수 개월을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반대하는 부류 찬성하는 부류가 일어났다. 바울은 그 부흥의 불 쏘시개를 지나치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 모여 2년 이상을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다. 그 결과 개인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 불은 아세아 지역이 복음을 다 듣고 그 여파가 로마에게로 향한 것이다. 이미 세워진 로마의 교회는 부흥의 불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갖게된 것이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에베소서이다. 그가 에베소 사역에서 품었던 부흥의 그림은 에베소서의 주제인 지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보인 것이다. 이 교회의 자화상은 21 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의 그림이 되기에 적절하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부요나 기술에 치우친 선교가 아니고 단순히 성령의 나타남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한 말씀 연구를 통해 성령이 자발적으로 나타내시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37.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2)

부흥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다. 삼층천에 올라간 후 바울이 보았던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높 아진 그 영광이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란 사실을 보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 질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문안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할 이유를 긴 한 문장으로 서술한다. (엡 1:3-14) 이것은 그의 가슴에 짝 찬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싶어하는 영적 감동과 충동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계시 를 기초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부흥의 목표에 대한 성경의 진리 를 바로 이해해야한다. 부흥의 참된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부흥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화된 상태를 가리킨다. 부흥하면 기적, 성령의 은사체험, 성장, 영성, 숫자증가, 발전된 기독교 문화 등을 떠올리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부흥의 증상은 될 수 있어도 부흥의 목표일수는 없고 부흥의 수단은 될지라도 부흥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 부흥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태를 가리킨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러야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첫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킨다. 좀 더 자세 히 말하면 의와 인과 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열매가 표현 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다. 이것을 우리는 새생활, 기독교 윤리,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변화를 목표로 성령은 오셨고 그 일을 위해 부단히 일하고 계신다.

둘째,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다. 부흥 목표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자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나라 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시작된 교회는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여야한다. 이것이 종말시대(신약시대)를 겨냥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따라 살 때 임하는 독특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공동체가 부흥의 영이 부어진 시대마다 표현되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생겨 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것이다. 부흥의 참 목표는 성령이 일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났다.

37. 에베소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3)

부흥이란 종의 도 곧, 섬김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부흥을 불이나 폭풍으로 비유하는데 익숙하고 물이나 보슬비로 비유하는 데는 미숙하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미각이 세상 자랑과 탐욕에 잘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하는 개인을 관찰하면 부흥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섬김의 마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야고보서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거했다.

1) 부흥의 영이신 성령은 겸손의 영이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신자 속에 놓인 욕 곧, 세상정욕은 겸손을 막아 허탄한 자랑의 늪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발동한다. 언제나 이것을 다루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다. 부흥은 이 정욕을 다스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마음이 부흥이다.

2) 부흥은 주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한다. 이 겸손한 마음은 정적 상태가 아니라 무한한 동적 상태 곧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타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갈망이 부흥이다. 이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메는 것처럼 큰 열심을 가지고 갈급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3)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다. 사모의 마음은 진실된 기도로 성장한다. 엘리야는 자기의 욕망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간구했다. 진정한 간절은 진실과 진실의 만남으로 성립된다. 이 진실한 심령의 기도가 능력을 동반한 것이다.

4) 행함있는 믿음이다. 부흥은 믿음의 진수인 행함으로 표현된다. 삶이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생활에 까지 진리로 이끄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부흥의 샘물은 영원토록 솟아나게 되어있다.

5) 모든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다. 부흥이 일어난 현장에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유혹이 언제나 기다린다.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부흥이다. 마귀든 세상문화든 어떤 자극적 시험일지라도 부흥의 영은 더 큰 새로움으로 강하게 임한다. 그 순간이 신자의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6) 경건의 능력으로 표현된다. 야고보는 이상적인 부흥의 표본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소자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참 경건이 그의 삶을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7) 인내하는 마음이다. 진정한 부흥은 비와 같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한다. 이것이 부흥의 길이다.

39. 열매 맺는 방법

결실의 계절, 가을에 어떻게 하여야 항상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길을 주님으로 부터 듣고 배우는 일이 귀하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 장에서 그 방법을 자상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5)”고 하셨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을 이룬 신자가 항상 그 안에 머무는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끝까지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을 핑계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받은 자가 순종생활에 힘쓰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밖에 나가려 하는 옛 성품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삼아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본문 7 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5)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했다.

칼빈주의 3 대 신학자 중 하나인 바빙(Herman Bavinck)이 말씀(성경)에 관해 말하기를 “사람의 말은… 그 사람과 그 말과의 시간적 혹은 장소적 거리에 따라 효력의 다소가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과 함께 현립하여 계신다. 그는 언제나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 …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나 성령에게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영감되었고 계속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관되며 능력있게 되는 것만큼 거기서 성취하며 전파되는 부분적 말씀도 역시 그러하다.” 고 했다.

하나님 말씀은 8 가지 이상의 능력 곧, 1)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롬 1:16, 고전 1:18, 2:4,5 15:2 엡 1:13) 2) 생명있고 영존하는 말씀이라고 함 (벧전 1:25) 3)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함 (히 4:13) 4) 살리는 영이라고 함 (요 6:63) 5) 어두운데 비취는 빛이라고 함 (벧후 1:19) 6) 마음에 심는 씨라 함 (마 13:3) 7)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이라고 했고(히 4:12) 그리고 8)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라 했다.(살전 2:13)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알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한다.

40.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함

에베소교회의 부흥을 구하는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서의 계시를 통해 첫째 날, 고난 속에 준비하신 형통, 둘째 날, 말씀 순종의 습관화 그리고 셋째 날, 한 의로운 가지의 구원에 대해 생각했다. 부흥이란 고난 속에서 말씀 순종을 힘 쓰며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생활에 힘쓸 때 찾아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 다 적극적인 부흥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생활에 따라 좌우된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이 간음자 이며 거짓말쟁이이며 악인이기에 소돔고모라처럼 처참했다.(14) 하나님은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징계를 허락하셨고 (15)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고 경고하셨다. (19-20)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여호와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짓선지자란 하나님의 묵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16) 묵시란 성령이 열어 주시는 진리를 가리킨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것이다. 성경이 묵시이며 성령이 이것을 조명하여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과 꿈과 비전을 본다고 했다.(행 2:17) 신자란 묵시에서 시작하고, 묵시를 따르고, 묵시로 마친다. 묵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망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묵시로 충만해야만 한다.

둘째,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회의란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가리킨다.(18, 22) 기도하는 시간이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도시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뢰고 그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뜻)을 생각하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간구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한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회의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와 바벨탑을 세울 때 “우리가 내려가 본다”고 했다. 그리고 욥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회의의 결정으로 하락된 것을 본다. 유대 민족이 몰살될 위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두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함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생활에 힘쓰자. 거기에 길이 있고 문이 열리고 진리가 임한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기를 힘쓸 때 일어나는 것이다. “주여, 기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41.부흥의 점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현대교회에 접목시키는 두 번째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부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성경으로 성경이 마음에 접촉 할 때 일이 생긴다. 그것은 성경말씀이 가진 독특성 때문이다. 주님께서 성경을 영이요, 생명이며 영생의 원천으로 주장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심같이 신자도 그 성경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 불이 불듯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시원해지고, 회개와 사랑이 생기며 모든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 이것을 한마디로 부흥이라 할 수 있다. 시편기자의 체험도 마찬가지였다.(시 19:)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며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으며 찬양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소리가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성경의 확실성, 완전성, 순결성, 진실성, 그리고 구원성에 대한 확신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접촉할 때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말씀을 가리켜 꿀 송이 보다 더 달다고 하며 모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고백했다. 더욱이 그는 한 구절에 나타난 말씀에 근거를 둔 그의 모든 묵상과 말이 주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제물로 드러지기를 소원했다. (시 19:14) 말씀에 접할 때 이런 가치관의 발견이 일어났고 모든 일반은총의 활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마가 다락방의 부흥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임했고 뿔박가운데 있는 사도들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을

구했을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으며, 에베소 교회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교정시키며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대 각성 운동도 설교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쓸 때 일어났고 한국교회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도 벌써 성경사경회를 통해 성경을 배우려는 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교회사는 증거한다.

오늘날 여러 형태로 성경을 접촉시키려는 노력은 정말 귀한 일이다. 성령의 부흥의 불이 점화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날마다 대하는 성경의 내용, 문장, 글자 하나 하나에 집중하여 얻은 의미를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불은 이미 그 속에 붙은 것이다. 문제는 나와 성경의 접촉 문제이다. 성경의 글자 하나에 하나님의 권위, 통제, 그리고 임재를 인정하는 자는 부흥의 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42. 부흥의 그림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현대교회에 접목시키는 구체적 내용을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부흥의 자아상을 가져야한다. (2) 말씀을 접촉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3) 지속적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4) 전도 실천이 일어나야 한다. (5) 묵상시간을 습관화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 가지 중 성경적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사모심을 가지고 고민과 수고를 들여야 한다. 성경이 그려주는 교회 자아상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발견한다. 거기서 우리는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움을 본다.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애절복결하는 모습은 성경의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감옥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찬송할 수 있었다.(1:3) 1:4-13 절에 한 문장으로 나타나는 그 찬송은 성부의 구속 계획과 성자의 구속 성취와 성령의 구속 적용으로 요약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 안에 주어진 구원을 바라보고 감동하며 찬송하는 것이 참 부흥의 모습이다. 무엇 때문에 찬송하나? 건물의 웅장함, 많은 숫자, 재정의 풍성함, 조직체의 기막힌 움직임 그리고 장래의 희망찬 비전 등을 찬송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속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찬송의 근거라 는 말이다.

타락한 교회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건다. 창세 전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내게 적용되어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된 사실 하나만으로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으로 찬송해도 그 속에 구속의 가치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신자의 마음에 항상 그려야하는 부흥의 자아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이어야 한다. 이 그림이 말이나 생각이나 일에 언제나 묻어나야 한다.

현대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부흥의 그림을 아름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곳에도 구속의 그림이 강조되어야하며 큰 시스템을 가진 교회 속에도 구속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 부흥의 그림이 우리 속에 뭉개구름 처럼 솟아나게 하자.

43. 에베소교회의 부흥방법 (2)

넷째, 사람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정, 도시, 지역, 소아시아, 로마,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인 자신의 변화가 돌파구이다. 자신이 먼저 변하면 이웃이 변한다. 야곱이 변하니 에서가 변한 것처럼, 에스더가 변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변한 것처럼 자신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는 영적 순서는 불변한 것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의 변화는 저변에 처한 영혼들, 악령과 마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 힘이 뻗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 책을 불태우는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시대가 어두우면 요행이나 신비에 기대를 걸고 평가 없이 흘러가는 대로 행한다. 아테미와 데메드리오 여신상의 본거지인 에베소시의 영혼들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그 우상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바알이나 아세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부요와 번영과 쾌락의 신들이다. 현대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그 시대 의 표현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기대와 비전과 이상은 모두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말씀을 받으면 혼란 속에 거하는 영혼에 변화가 온다. 영적 지진, 영적 폭풍이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다. 에스라 한 사람의 영혼의 불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개혁하려는 결심과 개인의 실천으로 나타났을 때 첩첩산중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한 영혼이 말씀을 바로 받는 일은 그 자체가 부흥의 불과 부흥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성경 강해는 그 도시의 저변에서 부터 듣기 시작하여 마침내 소아시아 전체가 말씀을 듣는 역사로 이어졌다. 그 역과는 항구도시, 에베소

지역의 불이 로마로 나가게 되었고 그 불은 여러 고난의 과정을 거쳐 온 세계를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흥은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말씀을 바로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혁이다. 이 불은 수 천년 후에 일어날 세계 민족을 겨냥한 불이었다. 성령의 부흥은 잠깐 불다가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천국의 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흥은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아니라도 그 나라의 그림자이며 그 나라의 맛을 내는 모임이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그 나라의 맛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게 된다. 땅에 있는 동안 교회는 죽음의 도시, 죽음의 사람들, 죽음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의 불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구하자.

44. 에베소교회 부흥의 방법

에베소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인간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일전에 말씀을 접한 일이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12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안 수를 받을 때 부흥의 증거가 나타났다. 그 후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장기간 이루어졌을 때 그 불길은 소아세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행 19:)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방법을 관찰 할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다.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120 명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거나 고넬료의 가정과 친지들이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일처럼 12 명의 작은 무리가 모여 복음을 듣고 응답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작은 손을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부흥의 불은 언제나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한다. 애통하는 한나의 마음에서, 옷을 찢는 에스라의 마음에서 그리고 복음에 빚진 부담을 가진 바울의 마음에 불은 성령의 불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작은 겨자씨와 작은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의 능력은 동일한 원리를 따라 나타났다. 많은 것, 좋은 시스템에 숙달된 눈에는 이 부흥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다. 나 한사람의 가슴에 부흥을 불씨가 있다면 주님 은 일하신다.

둘째,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성령이 부흥의 주체이시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거듭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신다.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불은 말씀의 도화선을 따라 일하신다. 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능력의 세례가 저들에게 임함으로 일이 시작된 것이다. 성령이 친히 준비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부흥의 주체가 전적으로 성령이시다.

셋째, 궁핍을 느낄 때 일어났다. 갈급함과 사모함이 부흥의 조건이다. 아데미와 다이아니 우상에 집착된 에베소시 어두운 정황을 바라보고 빛의 필요성을 느낀 사도는 부흥의 사모함으로 가득 찼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심혈을 쏟은 것이다. 부흥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이 필요 하다. 그럴 때 간구하게 되고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며 성령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이다.

45. 에베소교회 부흥의 그림

에베소 교회를 부흥의 모델로 주장하는 이유는 부흥의 진면목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흥은 곧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다. 부흥하면 사람의 숫자의 증가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변화, 사회적 칭송 받음 등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이는 부흥은 그리스도 형상의 나타남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도덕적 변화로 나타난다. 에베소 교회에는 말씀이 흥왕하여 그 세력을 얻어 윤리적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착함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나? 그저 성경을 가르치기만 했을 뿐인데 악귀가 나갔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의로움도 나타났다. 어떤 마술사들이 자기 가진 은 5 만이나 되는 가치의 마술 책을 모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소 아시아 전체에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청교도의 꿈처럼 성경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이다. 숫자는 지나가지만 영적 변화는 영원히 남는다. 문화는 지나가지만 문화를 만든 성령의 역사와 열매는 영원히 남고 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적용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적용은 성경적 성향을 갖는다.

이것은 초대교회 부흥의 또 다른 그림이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기도, 찬미, 순전한 마음으로의 변화를 에베소교회에서도 보기 때문이다. 안디옥 교회에도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칭송을 받았다.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 그림에는 흠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된 모습, 에베소 교회를 향 한 바울의 교회 자아상은 외형이나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된 공동체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한 모습 곧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이상적 교회 부흥의 모델이다. 세상 환난 속에서의 부흥, 곧, 바울이 가진 교회 부흥상은 교회론을 다룬 에베소서를 통해 더 잘 보여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발판을 두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악의 영들과 싸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교회이다. 이 땅에서 보여진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 체,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다.

46. 에녹에게 부여된 부흥의 영 (1)

에노스 부흥의 추수기에 아담의 5 대손 에녹에게 성령이 부여져 노아홍수를 준비시킨 사실이 창세기 5 장과 유다 14-15 절을 읽을 때 알려진다. 어째서 에녹에게 부흥의 영이 부여졌는가?

첫째, 그가 300 년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를 통하 여 에녹의 365 세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65 세 까지 에녹의 삶을 세속적 생활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이 “방패막이”라는 뜻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의 정황으로 보아 도리어 에녹은 죄악의 문화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300 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인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경건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계심과 그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믿음의 경건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받은 사실이 부흥을 증거한다. 세상 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은 성령을 좇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7 세손이라 하지만 대가족 관계를 이룬 가운데 그는 살았기 때문이다. 300 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

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 것이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육체를 죽이지 않으시고 데려가신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증명한다.

셋째, 그는 종말의 구속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유다를 통하여 아담의 7 세손 에녹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했다고 알려진다.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수천수만의 무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수천 년 후에 될 일을 에녹이 알고 예언했을까?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최초로 말한 선지자가 바로 에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의 부으심의 부흥은 세상에서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하나님과의 산 교제인 임마누엘을 맛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파하는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47.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 (1)

미국 대각성운동의 선구자 에드워드는 최초의 성령의 부흥을 창세기 4:26, “그 때(에노스)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구절에서 찾는다. 그 후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시아, 스룹바벨,..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것이 왜 성령의 부흥인가?

첫째, 부흥직전의 시대적 정황 즉 가인으로 시작하여 건설된 문화사역이 창세기 4 장에 나온다. 건축의 조상, 악기의 조상, 유목의 조상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은총의 증거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가인 5 대손, 라멕에 이르러 일부다처주의와 살인으로 까지 발전, 7 배보다 더 많은 77 배의 징벌을 거론하는 잔인함을 지닌 채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검가 (23)”에서 보게 된다. 당시 문화와 예술은 죄악의 도구가 되어 셋의 후예마저도 경건에서 멀어지게 한 것처럼 보인다. 경건을 떠난 것은 궤도를 이탈한 위성처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문화를 통해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타락시키고 만 것이다. 이때 부흥의 영이 부어진 것이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 부흥이 시작되는 법이다. 그 속에서 새 일이 시작되었다.

둘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부흥인가? 어떤 이는 기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이는 공적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 200 년 이상 기도 없는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모세는 왜 강조했을까? 기도가 없다면 삶의 목적을 잃은 증거이고, 불순종에 떨어진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의 맛보다 불의, 불안, 불만으로 채워진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런 중, 셋의 후에 속에 계신 경건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 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며 기도한 것처럼 보인다. 기도와 예배는 셋의 자손들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부흥에는 언제나 경건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선행되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먼저 한 일이 기도인 것과 같다. (행 9:11) 기도 없이 부흥이란 없다. 성령의 부으심은 언제나 기도의 통로를 사용하신다.

셋째, 부흥의 실재와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사모의 마음이 부흥의 실재이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부흥의 불을 붙이신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의 마음이야 말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거친 후에 찾아오기 때문이다.(마 5:3-6) 참 성도는 복음의 꿀도 사모하지만 복음의 몰약도 사모한다.(Thomas Watson)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는 요엘의 계시가 이때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부어진 부흥의 증거이다.

48. 말씀을 품는 습관

앞서 언급한 부흥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지침 즉 부흥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며 전도를 실천하는 일에 활력을 주기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은 말씀묵상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부흥의 불쏘시개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흥이든 배후에는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이 있었음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거 한다.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호렙산 굴에서는 폭풍과 지진, 불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그를 찾아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사명을 받아 엘리사를 세운다. 에스라의 부흥도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다. 요나 역시, 니느웨 성을 부흥시킨 것도 그에게 임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일어난 것이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은혜가 임했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 집안 식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으며, 에베소 교회 역시 순수한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났고 그 후 개인별, 단체별로 말씀을 오래 가르치는 일에 주력할 때 소아세아와 로마에 성령의 불길을 붙였다. 그 불은 세상 곳곳에 번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말씀묵상을 생활의 중요한 자리에 놓고 묵상하기를 힘쓸 때 부흥의 불은 이미 마음에 타오르게 될 것이다.

말씀이 불씨라면 묵상은 불이 붙는 시간이다. 말씀 묵상은 시편 1:3 에 노래한 대로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싱그러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묵상하는 마음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연합이 실현된다. 그리고 가장 복된 상태에 머물러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힘이 계속 타오르게 된다.

성경 한 구절씩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그것과 나와 의 관계를 자세 히 생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따르려는 마음으로 문을 열 때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부흥의 불이 붙는 시간이다. 호렙산 가시떨기에 붙은 신령한 불처럼 성령의 불이 마음에 타올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예레미야처럼 방망이 같이 두들기거나 수가성 여인처럼 솟아나는 물을 맛보거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암탉이 계란을 품어 부화시키듯이 내가 접하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고 수고를 드릴 때 반드시 부흥의 불은 나의 메마른 심령에 번져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49. 전도실천

넷째 부흥의 실제적 방법은 전도실천이다. 오래 전 한국 교회 부흥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필자는 전도를 실천해 본 일이 있다.

한번은 은혜받기위해 삼각산 특별기도원에서 개최하는 부흥회에 참석하였다가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한국대학생전도회에서 주관하는 전도세미나에 참석해 사영리 전도책자 훈련을 받고 들쭉쭉지어 노방 전도를 한 일이 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전도사 시절부터 메가폰을 들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토요일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외치 기도하고 때로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영리 책자를 들고 전도한 일이 있다.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복음 증거의 확신이 늘 마음에 불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부흥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규칙적으로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이다. 그때 영적 세력이 어 떠함을 의식하게 되고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고 나의 영적상태를 점검하여 더 나은 것을 갈구하게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자체를 전하는 수고를 드리는 일이 부흥의 길이다.

전도사 시절, 사영리를 차트로 만들어 집집마다 복음을 제시한 일 이 있었다. 때로는 무당집에도, 때로는 불교집안도 또한 난치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가 보았다. 어느 날 내가 지도하는 중고등부 학생의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하여 문을 노크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나와 응접실에 서로 마주 앉게 되었고 사영리를 모두 읽어 주었다. 처음에는 잘 듣지 않다가 마지막 영접하는 그림에 와서 예라고 답변하기에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우리는 감사드리고 교회로 돌아 왔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메가폰으로 노방전도를 할 때 처음에는 큰 부담을 느낀다. 한 시간 정도 구호를 외치고, 찬송을 부르고, 표지판을 들고 흔드는 일 그리고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로 소리치는 일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분위기와 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을 마친 후에는 기이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한다. 의무에서 특권으로 바뀌어진다. 지금은 건강 핑계로 쉬고 있지만, 전도 실천이야말로 부흥에 불을 붙이기 위해 교회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수고는 많이 들어도 거기서 얻는 영적 유익은 막대하다. 우리 주님의 대 위임령을 따를 때 임마누엘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50. 부흥을 갈망

부흥을 현대교회에 접목시키는 세번째 길은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절실해야만 한다. 부흥을 구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의에 주림과 목마름(마 5:6)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수순을 거치지 않은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에베소서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바울은 그 자신 속에 부흥의 갈망으로 채워졌다.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기를 그렇게 원하였으며 복음 안에 약속된 모든 은사가 불일듯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였다.(롬 1:11)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더 나은 은혜의 차원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였다. 일찍이 아볼로를 통해 율법을 중심한 복음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복음을 접촉하지는 못하였다.(행 19:2) 바울이 이것을 꼬집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는 그들의 간단한 대답은 갈망을 포함한 것이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고 할 때 즉시 강령한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원한 것이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가 안수함으로 12 명 모두 오순절 날 120 명에게 나타난 것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오순절 역사의 반복이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다. 부흥에 대한 갈망이 부흥의 소낙비를 몰고 온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부어주신 마음이다. 부흥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다. 에스라의 부흥도 저들이 스스로 모여 금식하며 갈구할 때 나타났다. 그때 성령은 임하셔서 은사를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신다.

현대 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왜 필요한가? 한국교회, 이민 교회, 세계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원하기 때문이다. 부흥 플랭카드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인터넷의 웹사이트 마다 부흥의 표어와 슬로건이 여기 저기 떠오른다. 디지털 텔레비존으로 바꾼 후 모범적 교회의 예배 실황과 설교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온 종일 홍수처럼 쏟아진다. 쌀 창고에서 굶어 죽는 생쥐처럼 부흥의 외적 분위기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서의 부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흥을 갈망할 수가 없다. 필요를 모르면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의 소원과 갈망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 갈망이 현대교회의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갈망은 기도로 표현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 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는 노력이 일어날 때 갈망은 더해가고 기도의 불은 더하게 된다. 개인기도, 단체기도, 골방기도, 공중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 등 모두 필요하다. 자기에게 맞는 것부터 찾아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자. 내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한다. 성령은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51. 시내산 언약

그 동안 이루어지던 개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 차원으로 맺은 최초의 은혜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여 모세의 중보사역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화 시키고 더 발전한 형태로 주어졌다. 그 언약에 나타난 은혜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심으로 나타났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위에 친히 강림하심은 하나님 백성의 왕 되심의 선포이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서의 여호와와는 만유를 다스리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나라는 구체화된 것이다. 그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둘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주종관계로 세워진 그 나라는 사랑과 복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인다. 십계명과 신명기의 구조가 고대 근동의 군주와 속국과의 협약 형태처럼 구성된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더 분명하게 해준다.(Kline) 은혜언약의 기본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이스라엘의 절대 순종은 신약에 완성된 새 언약에도 여전히 보여지는 원리였다. 성령충만을 받은 신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희락과 의와 평강이 그 나라의 맛이기 때문이다.

셋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 나라의 법(표준)을 세우셨다.

또한 그 나라의 표준인 십계명과 율법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있다.(마 23:23) 그래서 주님은 계명과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고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마 19:17)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인과 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복음의 가정교사이다.(갈 3:24)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기다리는 새 언약임은 이미 세상에 증거되었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구원의 삶에 대하여 더 풍성한 증거를 가진 셈이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은 구약교회 위에 부어졌다. 그리스도 안 에 있는 교회는 시내산의 경험 보다 더 확실하고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받는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기에 변치 않는 사랑과 복종의 교통이 항상 일어난다.(히 12:26-29)

52. 모세에게 임하신 부흥의 영

80 세에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있던 모세는 급히 찾아오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와 사자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호기심에 끌려 다가갔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 하였다. 모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구약을 대변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장차 오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백성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영권이 주어졌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 에 이른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그 후, 광야 40 년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는 광야 교회의 머리로 일한 셈이다.

그런 모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 여호와와 부르심을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소명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성부는 부르시고, 성자는 부르는 내용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은 그 소리를 잘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일하 신 것이다. 성부의 권위, 성자의 의미, 성령의 임재가 모세의 부름에 작용한 사실은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여러 변명했으나 그 마지막은 절대 순종으로 나타났다. (출 3:10-22)

둘째, 영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명을 주신 주님은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다. 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가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홍해에 길을 내고, 반석을 쳐 생수를 내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일이 나타났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셋째, 성결 본위의 삶으로 변했기 때문이다.(출 3:5)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거룩의 사역 이어야만 하기에 모세는 성결한 종이 되어야만 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히 12:14) 모세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는 제 2의 모세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참 모세인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 모세에게 성실하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일하신다.

야곱에게 부어진 부흥의 영 - 에드워드의 부흥론 (5)

아브라함의 복인 성령의 약속은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승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빛 아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칭의로,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성화,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영화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Vos) 칭의와 영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처음과 마지막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생애를 통한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루터의 개혁

이 칭의에 초점을 두었다면 칼빈의 개혁은 성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일생의 모든 일들이 성화의 범주에 속한다. 그 중 야곱의 생애는 그 자체가 성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브니엘에서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 까지 그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 영적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했다. 거짓, 탐욕, 미움 같은 인간 수단이 앞섰다. 그러기에 많은 고난이 그에게 따랐다. 하나님의 목표와 전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이다. 야곱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 그의 마음에 거룩한 고민이 있었다. 압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겨졌을 때가 그의 타락한 심령을 보기에 적절한 순간이었다. 모든 방법을 다해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 했으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 대신 근심이 가득했다. 종전의 근심과는 질이 달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살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신 증거이다.

둘째,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그 근심은 천사와의 씨름으로 변했다. 그 문제의 대답이 자기에게 없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간청하는 것이다. 그의 기도 제목은 내게 복을 달라는 것이다.(창 32:26,29) 호세아는 그 상황을 그의 탐욕 때문에 울며 회개한 것을 해석했다.(호 12:3) 성령은 복의 노란 자위를 보게 하셨다.

셋째, 그가 행복했다는 사실이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징계를 받는 중에도 놓지 않았다. 자신의 간사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며 견디었다. 진정한 행복이었다. 성령은 언제나 자기부인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신

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증거로서 한 마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탐욕의 껍질이 벗겨진 그에게서를 만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의 겸손한 담력은 예측을 뒤엎고 그를 변화시켰다. 부흥의 영이 임할 때 심령과 가정과 이웃이 변한다. 성령의 복은 먼저 변화된 심령을 통해 밖으로 흘러 나간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흥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심령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나 없나가 관건이다.

53. 아브람에게 부여된 부흥의 영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취를 남기기까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었다. 성령의 부르심이 썸의 후예인 에벨(창 10:25) 가문에서 출생한 아브람에게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히브리인의 실제 조상인 그였기에 그의 생애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속의 성격을 확실히 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것이다.(창 15:6)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그는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되어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 그가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 서 우상 장사하는 집안의 아들로 살다가 여호와와 부름을 받았다.(행 7:1-3) 친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즉각 순종하였고 그의 생애 동안 신실하게 따랐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다. 성령의 부르심은 개별적이고 즉각적이고 절대적이다. 거둢남과 사명에 의한 부르심에는 먼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르심이 없는 썸이다.

둘째, 성령의 부르심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세가지 1) 큰 민족을 이루고 2) 창대한 이름을 가지며 3)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산 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의

증거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 위임령으로 완성되었으며 (마 28: 19-20)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갈 3:14) 성령 받은 성도는 복의 원천을 가진 자이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샘플이다. 성도가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할 복이다.

셋째, 이 부르심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났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나가면서도 그는 여러 문제를 만났다. 가뭄, 위협, 방황, 위기, 탄식 등이 있는 중에서도 그는 제단 쌓기 즉, 예배에 힘썼다. 성령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살 깊이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참된 경배자로 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신자는 모든 삶에 구제, 찬미, 선행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역시 그가 성령의 부르심에 신실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

성령으로 부름받고 성령의 복을 누리며 성령의 복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이며 특권이다.

54. 노아에게 부어진 부흥의 영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부흥의 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어두운 시대에 성령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심판을 중심하여 전개된 홍수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6-8 장에서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필자는 성령이 부어진 증거를 두 가지로 관찰했다.

첫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변화된 생활에서 찾는다. 노아의 프로 필이의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은혜를 입은 자(창 6:8-9), 믿음의 사람(히 11:7),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함으로 순종한 자라고 증거한 일과(히 11:7) 조롱당하는 환경에서도 경건을 지켰다고 말한 베드로의 증거(벧후 3:3-6)는 한마디로 성령을 통한 말씀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순종은 동서고금을 통해 은혜의 그릇이다. 이 땅에서나 천당가서도 행복한 자로 살 자는 순종의 사람이다. 성령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응답하는 마음이다. 황소를 끌고 다니는 아이의 힘이 바로 순종이다.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 부으시는 마음이다.

그런데 순종은 언제나 말씀의 권위와 함께 움직인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순종이 생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여 눈을 뜨게 하실 때 되는 일들이다. 노아가 조롱 속에서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한 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된 것이다.

둘째, 홍수로 혼동과 공허로 어두워진 만물을 새롭게 한 증거를 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샘이 터져 쏟아지는 40 일의 물 난리도 그렇지만, 그 영향이 온 세상에 미쳐 만물이 모두 죽고 썩고 병들고 부패하게 되었다. 물은 여전히 세상에 짙 차 있다.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적을 성령이 친히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권념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을 건히게 하셨다. (창 8:1) 여기 나온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할”라고 하는데, 성령과 같은 발음이다.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셨다는 뜻이다. 창조 전의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를 여호와와 신의 운행 (폼으심)으로 새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심판 후의 혼란을 성령이 정돈하시고 노아의 제단을 흠향하시면서 사시사철의 자연혜택을 누리며 관리하는 책임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이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순종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흥의 영을 구하자.

55. 부인당함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한갓 고행주의로 적용함과 달리, 그 누구도 보태거나 대신할 수 없는 독일무이한 사건으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며 참된 헌신을 하게 된다. 마 26:72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한 베드로의 부인은 주님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 준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의 일부분이었다. 왜 그를 부인함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을까?

첫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관계는 연합이고 구원의 본질이다. 그래서 관계를 부인함은 구원을 부정하는 셈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진실로 그 도당이다”는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다. 이는 순간적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행위이다. 부인하는 정도가 발전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여”라는 응답은 모두 주님과의 관계를 무참히 끊어버리는 발언이었다. 이것이 주님을 괴롭혔다. 이 죄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치명적이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고백은 이렇게 중요하다. 고백의 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롬 10:9-10)

둘째,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전제 앞에 압도되고 말았다. 하나님으로의

자기주장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일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을 번복한 것은 불신앙의 쓴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자유주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찌르고 말았다. 예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것이며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 대용으로 바꾼 것이다. 바알을 하나님이라 하는 고대 사람들처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말과 태도와 행동은 모두 십자가의 고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셋째, 예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간됨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인격을 경멸하였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여 별레나 짐승처럼 생각하는 태도이다. 참 사람으로 가장 착하게 오신 그를 인정하지 않음이 십자가의 고통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한다.(히 11:6)

고난주간 우리는 부인함으로 고통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의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심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관계를 인정하고 자랑하고 주장해야 한다.

56. 모세와 엘리야

재림의 영광 속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변화산 사건은 자기백성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그런가?

첫째,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모세가 전한 가르침과 예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은근히 알리는 상징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구약백성의 세례받음이며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한 생수가 나온 반석도 그리스도로 해석되며 광야의 뚝뚝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주님이 친히 해석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야의 사역 역시 그리스도 죽음 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빼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선지자 포함)은 모세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것을 대비하여 설명하신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사건에 그리스도는 항상 일하셨고 그의 죽음이 언제나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원수와의 대결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만 천하에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를, 광야에서 이방신들을 상대로 대결을 벌임으로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모세의 주된 관심사였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

대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되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들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신자의 모든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되심을 나타내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셋째, 모세와 엘리야의 자기 부인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호렙산에 부름받은 때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한 것은 구원역사의 도구로서 매우 필요한 태도였다. 이 점은 엘리야에게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세벨의 죽이려는 경고 앞에 두려워하여 도망가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불의 사자,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기 무능을 깨닫고 자아가 부인된 심령임을 보여주었다. 복음 안에서 이 원리가 계속, 더 선명히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넷째, 모세와 엘리야의 호렙산 경험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폭풍, 지진, 불이 지나간 현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체험이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것이다. 그 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것은 모세가 언약 백성의 기초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과 통한다. 둘 다 사명에 충성된 종들이었다.

마지막, 그리스도 권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계승한 것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것은 장차 이루어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엘리야)을 통해 권위를 받아 구속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엘리야가 엘리사로 연결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겹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만유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이다.

57. 미스바 부흥

죄악이 극에 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그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과 모세 같은 영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새 국면으로 넘어가는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갱신 곧 미스바 부흥은 어떤 특징을 보였는가?

첫째, 회개 성회였다. 이것은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3) 기랴트여아림에 20 년간 법궤가 머물러 있을 때 온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의 싹을 트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때는 지금, 방법은 전심으로, 방향은 왕이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성령이 부어졌다. 그 때 이스라엘은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성령으로 불레셋을 우레로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산제사를 드리면 성령이 친히 싸워주시는 원리가 여기에 다시 나타난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권했다.(행 2:38) 회개의 부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최초의 공동체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한 기도, 교제, 전도, 칭송, 기쁨, 그리고 경외심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둘째, 기도에 힘썼다.(5-6) 사무엘은 중보기도하고 이스라엘은 온 종일 금식했다. 그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일어났다. 헌신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 웨슬레의 말처럼 성령의 부으심은 반성이나 논쟁의 결과가 아니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것이며 기쁨, 평강, 사랑의 맛이였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은 죄를 알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셋째, 예배에 집중했다. 성령으로 시작한 기도는 예배로 나아갔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이다. 사무엘이 드린 번제는 공동체가 같이 예배한 것이다. 사무엘 주관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몸을 드린 십자가 위의 산제사는 넉넉한 효능을 가져왔고 가져올 것이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히 10:12)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부으심은 반드시 일어난다. 우레로 불레셋을 파하시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며 말씀의 다스림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다. 예배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다. 모든 삶에서 찬미, 선행, 구제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에벤에셀을 체험한다.

성령의 부으심은 개인과 공동체가 맛본 하나님 사랑의 체험이다.(롬 5:5)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은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어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신령한 환희를 은밀히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토마스 굴원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빛은 일반적 신앙의 빛을 넘어선 빛이라고 했다. 이 부흥을 우리는 갈구해야한다.

58. 사사에게 임한 성령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까지(삿 1:-삼상 9:) 325 년(1375-1050) 역사 속에 들어진 일이다. 13 명 중 8 명의 사사 즉, 웃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은 모두 성령이 임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안의 5 중 사이클로 반복된 사사시대의 역사는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의 특징을 보이는 샘플이며,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혼란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들을 연단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는 일을 하셨다.

이전까지 조금씩 나타나던 성령의 부으심은 이 시대에 와서는 두드러졌다. 모든 사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다. 여호수아의 영권이 계승되는 최초의 사사, 웃니엘에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필 때 사사시대의 성령 부으심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첫째, 위기 때에 부어졌다.(삿 3:10) 웃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메소포다미아의 구산리사다임이다. 7-8 절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파셨다고 했다.(8) 8 년동안 종이 되어 고생하던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이

사사에게 임하였다. 곤고한 환경 자체가 성령의 손 안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혼돈과 혼란 속에 일 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환난 날에 성령님을 불러야 한다.

둘째, 개인에게 임하셨다.(9) 시내산의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은 여호수아 이후 개별적으로 임하셨다.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웃니엘을 사사로 세워 싸우러 갈 때 성령이 부어졌다.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음”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사사들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들을 다스려야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했다. 지성, 감정, 의지를 지배하여 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임무를 가진 사사는 의와 진실과 공흠이 있어야만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시다.

셋째, 계속적인 평안을 주셨다.(11) 구산리사다임을 웃니엘에게 넘기신 하나님은 그 땅에 40 년 동안 평온을 주셨다. 성령은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계속 누리게 하여 하나님을 충분히 즐기게 하신다. 사사시대의 평안은 성령이 품으시고 불드심으로 일어나는 복이다. 공동체의 평강, 가정, 생업, 사회의 평안은 성령이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평안가운데 든든히 서 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한 증거이다. 지구력 없는 이 시대에 성령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한다.

59. 안식을 주시는 성령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시작하여 (신 34:) 가나안 정착으로 신정 왕국의 기틀을 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를 주로 부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 지혜를 나타내셨다.(신 34:9)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 일괄했다. 지혜 충만은 지도자가 가질 중요한 은사이다. 성령의 지혜란 모든 분야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나타나는 은혜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과 밀접한 관계로 산다는 뜻이다.(수 1:8) 그는 시편 1 편에 나온 복있는 자 곧 복의 근원으로 사역한 셈이다. 언약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모두 정착시키고 축원하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지혜의 영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낸 것이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아간의 죄를 처리하거나 기브온을 용납하고 남부 북부 연합군을 파하거나 그리고 각 지파의 분량에 따라 스스로 개척하여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은 모두 성령의 지혜의 나타남으로만 되는 일이다. 이 지혜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성령이 나타내신 은혜이다. 일곱 집사의 자격조항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다. (행 6:3) 성령의 지혜만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방면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영적 권위를 세우셨다. 여호수아의 정복 역사는 사도행전 역사의 그림자이다. 모세의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는 성령을 통해 교회에 나타난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은 모두 성령의 역사이다. 베드로를 위시해 성령 받은 모든 신자가 음부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으며 죄인을 구하는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것도 성령이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다. 지금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두루 다니며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한다. 처음 믿을 때 받은 성령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받을 때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을 때에(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것이다.(행 19:2)

셋째, 역사를 나타냈다. 실로가 오리라는 야곱의 예언을 여호수아가 성취한 것이다. 가나안 7 족속의 거친 활동 속에서도 사망에서 물려오는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된 것은 성령이 친히 그 일을 주도하신 것이다.

여호수아(예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유일한 완전한 여호수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는(마 1:20) 성령으로 사역하시고(눅 4:18) 마침내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눅 23:46)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엡 1:20) 성령 안에서 일하시며(고후 3:17)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롬 5:5) 그를 믿는

우리는 그 안식을 미리 누리다가 마침내 그 안식에 들어간다. 매 주일 지키는 안식일은 성령 안에서 안식이 요점이다. 부어진 성령이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지혜와 권위와 역사를 체험하며 실로의 안식을 안겨주시는 그 성령을 구하자.

60. 캄보디아 선교

4 월 20 일에서 5 월 6 일까지 3 주간, 교육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 우기에 모기에게 한번 물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이 알고 보니 사랑하는 브니엘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도의 은사로 되는 선교임을 절감한다.

월요일 새벽 12 시 50 분 비행기로 한국을 경유하여 화요일 밤 11 시경 도착한 캄보디아는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었다. 3 년이나 다녀 좀 익숙해서 그런 것 같다. 마중 나온 차전도사님과 학생들의 영접을 받고 앞 좌석에 타고 오는 중 백밀러에 걸려 꿈틀 거리는 뱀 한 마리의 환영을 받았다. 나무 밑에 파킹한 차 위에 떨어진 것 같다. 큰 왕궁에서부터 조각에 이르기 까지 뱀 꼬리 모양을 한 것은 뱀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어떤 선교사의 설명을 떠올리면서 우상으로 채워진 나라에 복음의 위력이 속히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아침 강의 8 시 그리고 채플 설교 총 4 시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꼈다. 단 한 시간 강의도 힘이 드는데 무려 4 시간을 연거푸 강행군하는데도 땀은 좀 흘렸지만 그래도 할만 했다. 작년에 비해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점심식사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여러 교수진들과 인사를 나누고 내 방에서 좀 쉬었다.

매일 5시 30분이면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찬송 세 장 부르고 제목을 따라 기도하며 성경을 3-4 장 영어로 소리내어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친다. 작년에는 크메르어, 중국어로 나누어 운영된 것이 이제 모두 영어로 한 자리서 실시한다. 매우 발전했다. 영어도 많이 늘어 채플 설교에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 대학부는 한 40 여명 신학부는 12 명으로 학교기숙사생활을 했다. 신학생시절에 학교 기숙사에 머물 때 한방에 30 명씩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며 이 때가 이들에게는 가장 값진 순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다.

내가 맡은 과목은 성경해석학이다. 실러버스(강의 안)은 근 100 페이지 가량으로 미리 프린터하여 준비되었고 텍스트 북 2 권을 12 명에게 모든 선물로 나눠주었다. 여기에 이준성 장로님이 선물하신 것이다. 40 볼 이상의 책을 선물로 받는 것은 그들에게 큰 선물이다. 이번 강의 준비에 근 20 여권 이상의 책을 검토하면서 준비했기에 내게도 나의 해석학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나님 형상회복 중심한 성경 해석학이란 이론을 세울 수 있어 참으로 의미있는 가르침이었다.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은 너무 값진 것이다. 성경이 풀려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 깨달음을 가진 자는 어디서나 소망으로 넘친 것을 확인했다.

61. 어둠의 십자가

성부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성자를 버리셨다. 일순간에 벌어지는 정전사태 같이 버림당하심은 삼위 하나님이 당하신 최대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3 시간 동안 흑암에 둘러싸였다. 흑자는 그 때 일식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절대 흑암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 어둠의 십자가가 창조전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보다 더 어두웠던 것은 흑암의 감옥에 떨어진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지옥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하면 애굽의 흑암 재앙은 단지 상징이었을 뿐이다. 혼돈과 공허만이 깔려있는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의 6 시간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종결시키는 순간이었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성부의 만족함을 보실 뿐 아니라 구속받은 자기 씨들을 보고 만족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이다. 마 27:45-56 절은 이 흑암의 고통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인다.

첫째, 세 시간의 어둠은 어떤 고통이었나? 무저갱의 흑암, 죄의 형벌의 흑암, 만유의 절대 흑암, 육체소욕의 흑암이다. 그는 이것을 모두 담당하신 것이다. 현실의 흑암을 모두 주께 맡겨라 다 처리했으니까 다 맡기고 믿고 고하라는 것이다.(빌 4:6-7)

둘째,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두 가지 길이 생겼다. 첫째, 부활의 길이 생겼다. 주님이 운명하자마자 성전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갖고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로 나가신 길을 따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린 휘장을 통해 나감으로서 새로움과 소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일순간의 흑암의 고통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광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셈이다. 그리고 그가 별세하자마자 예루살렘 묘지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승천하기까지 자신의 부활을 증거 했다고 기록한다. 그 다음의 변화는 양심이 살아나는 길이 생겼다. 몸의 부활은 이미 영의 부활을 증거 한 셈이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죽은 양심이 악을 깨닫고 살아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었다”고 소리쳤다. 이것은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증거이다. 하나님의 만족은 자기 백성의 선한 양심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십자가의 최 정점인 최대의 암흑은 성부의 최대의 사랑이 부어진 최대의 광명의 정점이다.(롬 5:5) 성령은 오순절이전에 벌써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흑암을 도말시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개인 개인이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서 형통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있다. 이제 교회는 십자가 효능을 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땅에서 매고 묶는 일에 힘쓸 일만 남아있다.

62. 희롱의 십자가

마 27:27-44 에는 세 종류의 희롱이 나온다.

첫째, 군병들의 희롱. 총독의 군대들이 모여 주님이 입으신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 손에 들린 후 무릎을 꿇고 왕의 평강을 빌면서 신하 흉내를 내면서 체형을 행하는 그들의 조롱은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가소로운 마귀의 희롱이다. 온갖 불의와 거짓과 공갈이 총망라한 조롱이었다. 일찍이 세례요한이 군인에 대해 관찰하여 했던 경고처럼 사람에게서의 강탈,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모르는 탐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했다.

희롱하는 마귀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보다 더 교묘한 목적이 있었다. 참을 수 없는 희롱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려는 울무에 빠지게 하려는데 있었다. 내게 절하면 천하를 내게 주리라는 유대 광야의 시험이 재현된 것이다. 세상은 정사와 권세가 마귀의 손아래서 움직이는 일이 많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조롱을 당할 때마다 참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이 좁은 길을 갔던 그리스도의 참으심으로 먼 날 마귀의 아지트인 로마는 망하였고 그리스도의 국가로 변화되었다. 그 일로 복음은 온 세계로 확산되었다. 조롱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공동체가 악한 문화를 개혁시킬 수 있다.

둘째, 행인들과 장로들의 조롱(39,41)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향해 지나가던 행인들은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고 조롱했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최대의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였다. 좁은 길을 가는 자기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야바위꾼처럼 내기나 하고 경쟁을 부추 키는 종교가 아니다. 침묵함으로 책임지는 종교이다. 주를 위해 수치와 창피와 수모 당함을 기뻐하는 이유는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 손해 보는 삶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

셋째, 강도들의 조롱. 이 조롱은 십자가상에서 또 나타났다.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다. 같은 극한 상황에 떨어질 때 같은 입장을 이해하여 친한 동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수로 같은 동료인데도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며 조롱했다. 성부는 최소한의 자비마저 거두어가셨다. 그래야만 자기 백성의 최소한의 죄와 죄책감과 지옥 형벌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이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장로들의 조롱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은 마귀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한 줄기의 끈을 스스로 끊으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각오하고 수치를 감수해야만 한다. 조롱당함의 시험을 통과할 때 왕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실행이 당해지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심적 고통을 크게

당하셨으나 주님은 침묵으로 그 조롱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일로 구속이 완성된 것이다.

63. 무정한 십자가

사정없이 내리친 빌라도의 판결은 최소한 공흘마저도 용납되지 않는 무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주님은 무정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 용납되지 않은 것 같은 무정함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빌라도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마땅히 무정한 고난을 지셔야 했기 때문이다.

마 27:11-26 절에 그 무정함은 어떻게 나타났나?

첫째, 최소한 도움마저 거절됨으로 나타났다. 로마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재빨리 눈치 채고 석방하려고 힘썼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명절의 전통을 이용하려고 생각했다. 강도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놓아줄 승산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하고 군중의 동의를 구하려하자 모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쳤다. 강도를 살리고 나사렛 예수를 죽이라는 것이다. 특사로 풀려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정마저도 거절된 것이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태도, 군중의 무지한 태도나 대제사장들의 교활한 술수도 그렇지만 성부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성자에게 최소한의 공흘마저도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다.

둘째, 최소한의 기회마저 거절되는 무정이었다. 빌라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 그의 아내가 지난 밤 꿈에 예수님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권면을 들었다. 아내의 조용한 권유를 통해 빌라도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석방하려는 뜻을 가졌으나 결국 군중의 거센 대세에 굴복하고 말았다. 성부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거두셨다.

셋째, 최소한의 공흘마저도 거절되는 무정이었다. 모든 기회가 총집합된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군중들에게 마지막 담판을 하려할 때 더 강한 소리로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민란을 걱정하고 자기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하여 선한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고 무관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었다. 마지막 공흘마저도 거절된 것이다.

최소한의 동정과 자비마저도 모두 거절된 십자가는 좁은 길을 걸으며 당하는 온갖 무정한 일들, 답답한 일들,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다. 십자가의 무정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자. 주를 따라 무정한 고독감을 느낄 때마다 참 하나님으로 보잘 것 없는 연한 순 같이 자라나신 참 사람이신 그 분과 분리될 수 없는 참 연합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주장하자.

64. 배신당함의 십자가

자살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까닭은 가롯 유다의 전철을 따랐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7:5 절에 유다가 목매 자살하는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 그의 마음이 자살로 치 달은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펼쳐지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속을 맛 본 자는 구원의 생명과 능력의 매력에 이끌려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갈망 때문에 공허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배신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7:1-10 은 그 배신을 이렇게 보여준다.

첫째, 동족의 배신(1)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죽이려 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여 그들의 땅에 왔는데도 그를 영접치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것이다. 어떤 임금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가, 추수 때 종들을 보내 세를 받으려 하자,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셨다.

둘째, 제자들의 배신.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하나도 없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홀로 두고 도망쳤던 배반은 주님을 고독하게 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언대로 그 누구도 동정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주님이 지셔야만 자기 백성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년간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모두 떠난

광야에서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다. 600 년 전 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떨어진 심각한 고독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기이한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독의 십자가를 지신 주의 공로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독, 우울증, 히스테리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배신당하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 분께 부르짖는데 있다.

셋째,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반역. 유다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제자 중 하나였다.(요 13:1-1-2) 최대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한 것이 사실이었고 유다가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그 사랑마저 거절하였을 때 버림받은 자가 된 것 역시 분명한 진리이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목매 죽는 결과를 보고서 그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뿐이다. 무엇보다 우리 관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반역이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는 반역하여 버림을 받았으나 주님은 그의 배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기이한 역사를 가져왔다. 가룟 유다는 구속을 이루는 일시적인 도구였을 뿐이다. 천국 문에 키스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다.(마 26:9) 마태는 은 30 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일이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했다.(렘 19:1-13, 32:6-9, 스 11:12-13) 아무리 치명적인 배신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신실이 사라져가는 배신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가까이 섬겨 신실하자.

